

10. 인주면

가. 인주면 마을 1 (걸매리)

1) 조사일정

1992. 6.27., 한혜인 기록

조사 둘째날인 6월 27일, 숙소를 출발하여 조사지인 밀두리에 도착하니 11시가 거의 되어 있었다. 특별하게 약속된 구연자가 없어 노인회관으로 가던 중 마침 노인들을 만났다. 조사자들이 조사 취지를 설명하자, 그중 정봉선 씨가 가장 관심을 갖고 <토정 이지함의 예언>을 구연해 주었다. 다른 노인들도 이야기를 거들긴 했으나, 자료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곳에서 오래 거주했다고 하는 분들도 4대를 넘지 않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그다지 이야기 거리가 많지 않았다.

전해 내려오는 민속 행사로, 음력 2월1일에 당제 지내는 것이 있다고 해서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당집 사진을 찍고 공세리 2구로 향했다.

조사 첫날 약속했던 분을 찾아갔으나 외출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 나오던 중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들을 만났다. 목소리가 우렁찬 박기영 씨가 <허풍장이의 큰 호박 이야기>와 <귀에서 콩이 자라나온 이야기>, <토정보다 용한 소금장수의 예언>, <영목바위 유래>, <밥장거리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구연 도중에 할아버지들이 더 모여들어 분위기가 산만해져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신성리로 향했다.

신성리에 도착하여 노인회관을 찾아갔으나, 노인들이 밭에 가고 없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인주면 마을 1】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걸매리

1992. 6.27., 방지선 조사.

마을을 들어서면 마을이 넓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반면, 시원스럽게 짙 펼쳐진 논과 고요함은 이 마을을 더욱 쓸쓸하게 하는 듯하다.

몇몇 노인들만이 쓸쓸하게 마늘을 엮고 있을 뿐 동네 아이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집집마다 마늘이 잔뜩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이것으로 보아도 마늘을 주로 재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주작물은 쌀 재배이다. 걸매리에는 제방 근처에 당집이 있어 매년 음력 2월1일마다 당제를 지낸다고 한다. 총 인구수는 500명, 총 가구수는 100세대이다. 젊은이들은 천안, 온양 그리고 서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만 사는 집들이 많았고 또한 빈집들도 눈에 띈다. 종교는 공세리로 성당을 다니기도 하지만, 당제가 있는 탓인지 대부분이 불교이다.

3) 구연자

【결매리 구연자1】

인주면 결매리1구, 정봉선(鄭鳳仙), 남, 75.

1992. 6. 27., 전연숙 조사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으며 이곳에 4대째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깔끔한 매무새를 하고 있으며 손짓을 하며 구연했다. 발음이 또렷하고, 썬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며 멧을 좀 내는 듯 했다. 이름을 써달라는 말에 회피하는 걸로 보아 글자를 모르는 듯했다. 고서적을 읽지 않아 잘 모른다고 하며 공세리 강경수 씨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이야기는 많이 해주고는 싶어했지만 잘 안 되는 듯 안타까워 했다.

구연한 자료로는 <토정 이지함의 예언>이 있다.

4) 설화 자료

【결매리 설화 1】

인주면 결매리 노인회관 옆 마당에서, 1992. 6.27., 최상은, 한혜인, 전연숙, 방지선 조사.

정봉선(남, 75)

토정 이지함의 예언

지금 여기서 저기를 나가보면, 바다를 나가 보면은, 여기서두 인제 날 좋은 날은 보이는데 마¹⁾놀이¹⁾이라고 하는, 저 뚜²⁾가 있는데 (조사자: 마놀이요?) 예, 솔개 바위라고도 옛날의 말로는 솔개 바위. 거기가 마놀이¹⁾라고 하는데 거기서 쳐다보면은 여흥바위³⁾라구, 여흥바위라고. 그 여흥바위가 어느 집 그 울 담안에, 말하자면 지금 요새로 말하면 둘안⁴⁾이라고 말하는 식이지. 거기에 서 있는데, 토정이 지개를 지고 가다가 받쳐놓고, 작대길 받쳐놓고, “요기까장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이면은 터진다.” 이러구 있는데 그날 나무지게에, 그 지금 말하지 문은 둘안에 있든, 즉 집 장광에 있는 그 여흥바위는 그냥 서 있어. (조사자: 그래 가지구 지금 물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니지. 지금 현재 물이 들어와. 드는데 다 터졌단 말이야. 토정선생이 예언을 했던 말이여. 그래 지금 현재 그 바위만은 여전히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 가문 소라도 잡을 수 있구 …….

나. 인주면 마을 2 (공세리)

1) 조사일정

1992. 6. 26., 류지원 기록

조사 첫날인 26일, 오후 2시 40분경 중식을 마친 후 조사자들은 1조와 함께 밀두리 노인회

관을 찾아갔으나 적당한 구연자를 찾지 못해 노인회관을 나와 그 마을 주민의 소개로 다른 할머니 구연자를 찾아갔으나, 부재중이라 다른 조사자를 찾던 중,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1조 조원들과 다시 합류하여 인주면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면사무소에서 다른 노인회관을 알아보고, 1조와 헤어져 공세리를 찾아갔다. 공세리 2구에 도착하니 4시경이었는데 마을어귀에서 김정운 씨를 만나 공세리 유래에 대해 잠깐 듣고 오창배 씨를 찾아갔다. 많은 이야기를 예상했으나 <토정 선생의 예언>밖에 듣지 못하고 다시 공세리 1구를 찾아갔다. 공세리 1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마을에 사는 차용재 씨와 최익균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은 바다가 보이고, 마을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성당을 바라보며 커다란 나무그늘 아래에서 구연자들의 구연을 들었다. 차용재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지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토정보다 더 용한 소금장수 이야기>라는 공세리2구의 오창배 씨와 비교되는 이야기와 공세리 유래에 대해 구연하였다. 또 최익균 씨는 <날이 흐린 날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육모바위>에 관해 구연하였다. 두 사람의 구연을 들은 뒤, 최익균 씨의 소개로 강경수 씨를 찾아갔다. 강경수 씨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조사자들의 구연 요청에 <앞일을 예언하는 토정과 소금장수 이야기>와 <비 오기 전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육모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육모바위 이야기를 들은 뒤 숙소로 돌아갈 시간도 되었고 이야기 거리도 다 떨어진 것 같아 다음날 다시 찾아와 보기로 약속하고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성당을 둘러본 뒤에 6시쯤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인주면 마을 2】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1992. 6. 27., 방지선 조사

성당의 은은한 종소리와 함께 시원한 느티나무의 휴식처가 곳곳에 있는 이곳 공세리는 예부터 삼도에서 배를 타고 와 여기에다 세금을 냈다고 하여 공세리라고 한다. 공공지서, 신협, 농업분소, 농촌 출장소가 있어서인지 발전된 농촌임을 엿볼 수 있었다. 가장 높이 지었다는 성당이 있어서 80%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다. 자연부락 이름은 현내면이고, 농사를 지으며 특수 작물인 파와 마늘을 재배한다. 총 가구수는 291세대이며, 전래되는 행사로는 추석 때의 애기 씨름이 있다.

3) 구연자

【공세리 구연자1】

인주면 공세리1구, 오창배(吳昌培), 남, 70.

1992. 6. 26., 전연숙 조사

10대째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나 예전에는 공직생활을 하였다 한다. 머리는 백발이지만 건강해 보였고 말투는 아주 또렷했다. 조사자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고 신통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는 이야기가 없는 듯 하였다.

옛 성인의 말이 옳다며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바래야 하며, 마음을 끈게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태를 한탄했다. 구연할 때는 ‘몰라, 몰라’를 연발했고 간신히 구연한 자료로는 <토정 선생의 예언>이 있다.

【공세리 구연자2】

인주면 공세리1구, 차용재(車溶載), 남, 76.

1992. 6. 26., 전연숙 조사

나이에 비하여 기골이 장대하다. 무척 건강해 보였고 지금도 오토바이 센터를 경영할 정도이다. 구연할 때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감 넘치게 반복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손으로 가리키고 짚으며 정열적으로 이야기했다. <토정보다 더 용한 소금장수의 예언>을 자신이 사는 동네의 전설이라며 자부심 있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으리라며 적극 협조해주었고 다른 분들과의 이야기의 장도 마련해 주었다.

【공세리 구연자3】

인주면 공세리2구, 최익균(崔翼均), 남, 64.

1992. 6. 26., 전연숙 조사

과, 마늘을 중심으로 한 농업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거주한 것은 20년 정도이다. 키가 크고 자상하나 병을 앓고 있어 매사에 조심하며 경계하는 태도이다. 구연 시 독특한 버릇으로는 손짓을 이리저리 하였고, 녹음을 하니깐 조금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 <날이 흐린 날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육모바위>를 이야기하는데 그쪽을 가리키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했다.

【공세리 구연자4】

인주면 공세리2구, 강경수(姜景秀), 남, 64.

1992. 6. 26., 전연숙 조사

이곳에 3대째 거주하고 있고 100여 년 된 공세리 성당을 이곳에 정착시킨 신부의 아들로 주민들의 신앙이 두텁다. 깡마른 체구가 주는 느낌이 민첩감과 박식함이었다. 잔잔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설교하듯 이야기했다. 조용히 이야기하며 흥분하지 않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조사자를 놀라게하는 유모어 감각을 지녔다. 느릿느릿 조사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했고 역사적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한다고 했다.

구연한 자료로는 <앞일을 예언하는 토정과 소금장수 이야기>, <비오기 전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육모바위>를 구연하였으나, 역시 마을사람들이 입을 모아 추천한 구연자임에도 이

야기는 궁했다.

【공세리 구연자5】

인주면 공세리 2구, 박기영(朴基榮), 남, 49.

1992. 6. 27., 전연숙 조사

공세리에 3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을 하고 있다. 애기에 과장법이 심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 청중의 폭소를 오히려 즐기려하는 듯하다. 시원 시원스럽게 큰 소리로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나 허풍이 심하여 신뢰감은 그리 많이 가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은 무식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일단 이야기가 터지면 일사천리로 해치운다. 49세의 나이에도 마을 노인네들과 격이 없었으며, 없이 살아도 재미있게 살아가려는 해학적인 구연자였다.

구연한 이야기로는 <허풍장이의 큰 호박 이야기>, <귀에서 콩이 자라나온 이야기>, <토정보다 용한 소금장수의 예언>, <영목바위 유래>, <밥장거리이야기>등이 있는데, 이는 젊어서 동네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4) 설화 자료

【공세리 설화1】

인주면 공세1리 오창배씨 댁, 1992. 6. 26., 류지원, 전연숙, 박은실 조사.

오창배 (남,70)

토정선생의 예언.

옛날이, 저 갯벌이, 저 지금 아산 서해안 개발했잖어? (조사자: 예.) 거 갯터여, 장터 거 인제 토정이가 와서 작대기 대구 “피해라. 며칠 날 몇 시에 여기 터진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풍처럼⁵⁾ 생각했거든? 그래 이저 토정이가 토정이가 떡 와서 여기 달개머리⁶⁾에 와서 쉬니까, (조사자: 닭의 머리요?) 닭의 머리, 닭의 모가지, 닭의 머리라구. 거 와 떡 있으니까, 요렇게 쉬니까 그리 막 터져. 닭 저 갯물이 작대기 밑이까지 오드라. 그러서 이렇키 된겨. 지금은 어 지금은 인제 서해안 개발 …… (녹음 불량) (조사자: 토정 이지함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그렇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기⁷⁾여, 그런 예기여.

【공세리 설화2】

인주면 공세2리, 1992. 6.26., 류지원, 전연숙, 박은실 조사.

차용재 (남,76)

토정 선생보다 더 용한 소금장수.

그전에 여기 역사를 얘기하든 저 편쪽은 닭에 머리라는 데가 있어. (조사자: 닭의 머리?) 아

산만 저 건너 쪽에. 닭의 머리, 닭 머리. 닭의 머리가 이 있었고, 다음은 여기는 인저 말하
 자른 저, 여, 닭허리라구 봐야지. 저편쪽 저 닭똥지라 보고. 이렇게 되었어. 인저 말하자른
 허리가, 인저 말하자른 쏜지 때문에 조렇게 쪽 파헤쳐나.⁸⁾ 그러니께 요길가 인저 말하자른
 요기가 쪽 빠졌구,⁹⁾ 저기가 쏜지가 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되가지구 인저 소금장사가 인저
 저편쪽에 가서 그 닭에 머리, 그 소금, 그 원래 그전엔 이것이 인제, 저 바다가 아니었었지.
 그러니께 인저 그 토정이가 한 말이, (청중: 토정 선생.) 한 말이, 그 소금 장사하고 한 말
 이, 한 말이 “저기 당신, 말하니까 말여, 소금을 갖다 지금 지게 맡아놓구¹⁰⁾ 있는데, 여기
 금방 나가니까 말여, 당신 주의해라.”구 그러지 않았어? 이 토정이가 여기 선당 뒤에 와서
 낚끄질을 하셨단 얘기에. (조사자: 낚시질요?) 인저 이거 토정이두 안다구 여기 와서 낚시질
 하구 있는데, 그러구 인저 퍼짚는데, 그 저기가 툽 터져가지구 나간 다음에 소금장사 축썩
 대기¹¹⁾ 밑구녕까지 나가구선 소금장사는 안 나갔더라는 얘기가. (조사자: 소금 다 녹았어
 요?) 소금두, 아 고대루, 고대루여. 하나 축썩대기 밑둥이까지 딱 터져나구나서 거기서부터
 인저 까딱없더라는 얘기에. 그러니까 인저 토정이가 한 말이 “나보다 더 용한 놈이 있구
 나!” 그런 얘기에. 그랬더라는 얘기에. 더 용한 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 그
 것이 전설이여.

【공세리 설화 3】

인주면 공세리. 1992. 6. 26., 류지원, 전연숙, 박은실 조사.

최익균(남,64)

날이 흐린 날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육모바위.

날 곳은 날에 (청중: 날이 시방 저기해서 안 되는데…….) 저기, 저 안개가 끼거덩. 그러믄
 인제 거기 말여 나타나는데, 여자가 물동이 이구 가는 게 저 보이구, 기와집이 수십 적¹²⁾이
 되여. 기, 기와집이 막 날리리 기와집2). 그게 보였다가 없어졌다가이제 뭐, 말타구 가는 그
 림, 그림두 나타나구 거 있는데 지극 공해루, 공해가 심해져 가지구 아마 그게 읊어졌어, 지
 금. (조사자: 육모바위가…….) 이 육모바위가 그것이 인저 바위가 저 육모로 보였다가 아니
 저 저 또 다섯개로 보였다가 두개로 보이다가 인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내가 와서두
 한 이십 년 전에는 그게 보였었다구 그런게. 영 논다구 그러지, 영 영 논다구. 그거 보구 영
 논다구 그러는데, (조사자: 귀신이 논다는 거예요? 영이 귀신 영 영자예요?) 그렇겠지. 인제,
 귀신 영(靈)잘 데지. 하여튼 영 논다니까 그게 그 말일 거야. 저 행당섬이라는 게 있거든.
 (조사자: 행당섬요?) 응, 행당. 조기 조 조기 보이는 거, 저기. 고기 고 사이, 사이가 지금
 저 항구. 평택 인제 항구지. 아산만 그 그게 아산만인데, 지금은 평택으루 한다더구, 고친다
 구 어찌구 하던 그랴. 거기 시작했다더구, 고친다구 어찌구 하던 그랴. 거기 시작했다구 그
 랴. 근저 그 고 세 개 바위가 말여, 하나로 보였다, 더서 여섯 개루 보였다 그래서 육모바위
 라구 인제 그것이 되구서, 아주 말여. 노는 게 참 재밌어서 쳐다보는 게 재밌었다구. 여자가
 이제 물동이 이구 가구, 물동이 이구서 집으루 들어가는 거, 날리리 기와집. 산에 그리구,
 그림이 말야, 한두 가지가 아니구 뭐 타구 가는 거, 뭐 여러가지 보였어, 하여튼. 거 재밌었
 다구. 근데 거기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조사자: 잘 안보여요?) 그, 그게 읊어졌다구. 바위
 만 지금 저 크게 보였다 또 즉게¹³⁾ 보였다 그렇게지. (손으로 가리키며) 지금은 저 하나만

보이네.

【공세리 설화 4】

인주면 공세리 강경수씨택 앞. 1992. 6. 26., 류지원, 전연숙, 박은실조사

강경수 (남, 64)

앞일을 예견하는 토정과 소금장수 이야기, 비 오기 전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육모바위.

거 하나의 뭐 전설, 뭐 그것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전설이라는 거보다¹⁴⁾ 막 그냥 얘기가 좀 있었지. 토정이 여기가 아니구 저쪽이었는데, 뭐 어또기¹⁵⁾ 하다 보니까 뭐, 그것두 이, 우리가 인제 그것두 이, 우리가 인제 췌두 완전한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전해서 내려오는 그 얘기를 들어 보면은 뭐 어드게 뭐, 뭐를 지구 가다가 받쳐놓고, 뭐 어드기 하니까 뭐 이게 드였다. 뭐 이진 뭐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자: 소금장수하구.) 글쎄, 소금장수. 그래서 지금 여기 뭉이 짜다. (조사자: 예, 물이 짜대요? 그 얘긴 다른데 하구 조금 얘기가 다른 거 같은데요.) 아니, 이 아산만 물이……. (조사자: 예, 소금장수 소금이 녹아 가지구 짜다구.) 그러니까 그 무슨 근거가 있고 또 뭐 그런 전설이 아니고. (조사자: 근데 아까 들은 얘기는요, 저기 소금장수하구 이 토정하구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토정이 여기까지 물이 들어 올 테니까 소금장수보구 저쪽으로 좀 피하라.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남 걱정 하지말구 당신이나 잘 처신하라구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물이 넘어온 걸 보니까 소금장수 바로 그 작대기, 그 지게 작대기만 물이 찼고 소금에는 물이 안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구 토정이 말 한 거보다 소금장수가 더 용했다. 소금은 녹지 않았대구 그랬는데, 할아버님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러, 그러니까 근게 그게 얘기가 그것이 확실히 뭐 근거가 있어가지구 내려오구 하는 거 같은데 모르는데, (조사자: 네.) 그건 그냥 구전에 의한……. (조사자: 예, 그러니까요, 들으신 얘기해 주세요.) 아, 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니까 나는 그런 얘기가 그 소금이, (조사자: 예.) 소금장수에 소금가마가 물에 잠겨 가지고, 물에 잠겨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아산만의 물이 짜다. 그게 사실은 이것두 참, 그 우수황스러운 얘기지. 아 황해물이 다 짠디, 어찌 소금가마 한두 가마 쏟아졌다구 물이 짤 수가 없는 거지.

아 여기서 보면은 아주 멋있는 기와집이 생겨. 아주 멋있는 기와집이. 그리고 또 어똥 때 보르는 어떤 여자들이 물둥이를 이구 가는 게 아주 역력히 여기서 아주 보이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그게 싹 사라지고 탄 게 또 나타나구. 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나타나구 뭐하구 하르는 며칠 있으면, 그런 것이 나타나구 난 한 이삼일 후면은 비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근디 요즘에는 그거보더 더 정확한 기상청이 있어서 그런지 인제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구. (웃음)

【공세리 설화 5】

인주면 공세리 노인회관 옆 느티나무 아래에서, 1992. 6. 27., 최상은, 한혜인, 전연숙, 방지선 조사.

박기영(남, 49)

허풍장이의 큰 호박 이야기와 귀에서 콩이 자라 나온 이야기, 토정과 소금장수의 예언, 영목 바위, 공세리 밥장 거리의 유래.

여기 거짓말, 허풍 잘 떠는 이가 있었어. 근디 듣기 싫은 거짓말이 아니여. 밭을 사가지구 호박을 심었다야 호박을, 응? 호박을 심었는데 이 놈의 호박이 얼마나 컸는지 호박 하나가 매달렸는데, 장정 둘이 이 쪽에서 도끼로 한번, 저 쪽에서 한번 찍는 걸 맞도끼질이라고 해 거던. 이걸 한 마지길 찍었대. 이걸 꼭지 딸때 어떤 호박은 손가락으로 푹 따지잖여? 얼마나 호박이 컸는지……. 이거를 그 전에 크레인이 있남. 이걸 동화밭¹⁶⁾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지구 마차에 올르니께 마차 강철이 푹푹 뿌러졌대. 얼마나 컸겠어, 호박이, 호박 알아? 그거 얼마나 컸겠어. 강철은 마차의 최대치. 최대. 그제 푹 뿌러졌대. 그래 그 호박이 얼마나 컸겠어. (조사자: 얼마 했는대요?) 나두 못 봤지.(청중: 웃음) 봤으면 나도 재볼 꼴. 재밌지? 그리구 그 할아버지가 또 한 애긴데 콩 마당질을, 옛날에 왜 이 콩질하니께, 둘이 끼니까 투들이잖여.¹⁷⁾ 그걸 투들이다 본께 콩알 콩이 귀로 하나 튀어 들어 갔단 말여. 이누무 걸 끄내다 못 꺼냈는데, 세수를 할 때마다 귀를¹⁸⁾ 물 한 방울 들어가잖여. 그때 물을 먹구 컸어. 그래 싹이 나가지구 이걸 나중에 뜯어내 보니까 콩 서대¹⁹⁾가4) 거기서 나오드래. 그러니께 거짓말이지.

옛날에 여기여. 지금 이게 바다였는데, 바다였는데 옛날은 갯물이 이만큼 들어 왔었대. 내 들은 얘기여. 내 봤나! 나이 칠십도 안됐는 걸, 내 알겠어? 근데 옛날에 소금 장사 얘기가 있지? (조사자: 예.)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더라구 그 놈의 맷돌이 가라앉아 가지구 지금 소금이 나와서 바다가 짜다라는 유모령²⁰⁾이 있자네 봐. 근디 요 갯뚝이 옛날에 어떻게 먹었었는데 며칠 날 몇 시에 그 사명당이 그랬을.... 사명당이 그랬슈? (청중: 토정.) 토정, 토정 선생이 “며칠 날 몇 시에 이 갯뚝이 터지니깐 사람들 전부 피난을 가쇼.” 그러니께 어떤 놈의 소금장수가 그 여기다가 작대기 지게라구 아냐? (조사자: 예, 알아요.) 작대기두 알구? 작대기를 딱 받쳐놓구 그래 거기서 아마 이런 권련이나 있겠어? 그제 가랑잎이나 말아 피구 봉초 피웠겠지! 그걸 피구 있더러. 그래 토정 선생이 와서 “빨리, 조금 있으면 물이 터질턴디, 물 터지면 물에 쓸려 죽을턴디, 여보 빨리 피하지 왜 여기 있냐?”구 그러니께 썩긋두²¹⁾ 안터라 이기여. 그래 토정 선생이 답답해서 “빨리 피하라.”구 “물에 빠져 죽는다.”구 그러니까 “터져야 까짓거 드러내브고 전부 다 터지는데, 작대기가 받친 그 끝은 머리까지만 터지구, 팬찮더래.”내. (웃음) 그래 토정 선생보다 더 푹푹한 겨, 낮은 겨? 그제 소금 장수여. 그니²²⁾ 그 사람 이름을 오늘날까지 몰러. 누군지 소금만 팔러 다니는 소금장수였지.

이 갯뚝이 터져서 날 찌뿌려서 저기가 안 보여. 저 근너²³⁾가 그 저 지금 시대적으로 발달되 가지구 남양에서 저리 보를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 뭐 제이 항구가, 뭐 동양 최대의 항구가 여기 아산만 만든다는 얘기여. 근데 저 바다가 다 산이구 물이 들어오구 나가는 디가 있거든 심빨이²⁴⁾ 무척 세겠지. 거기 섬이 있는데 날이 침침하구 비가 올 무렵이면 그 뭐 여자들? 여자들 싹²⁵⁾이 물독을 이구 가는 게 뵈다나. 여기서? (조사자: 네.) 청명한 날은 뵈여. 거 섬이! 지금은 안 보이네! 요놈이 물독을 이구 가다가 물 한 방울만 흘리든 그 비오는 수량을 왜 한 모지락 뭐 두 모지락 얘기한다구. 한 모지락이 인저 과학적으로 삼십 미리리터

정도를 한 모지락이라구 그래. 한 방울 흘리면 한 모지락이라구 그러구, 두 방울 흘리면 두 모지락이라구 그런다구. 그런데 얘기를 들었는데. 날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네. 저누무 모지락이. (조사자: 이름이 뭐라구요?) 영목바위라구 있어, 영목바위 ('영'자와 '용'자의 중간받음으로 말하며) 영목바위 '영'. '영'자는 없지? 한글에 '영'자! 영목바위라구 구설루 들어, 구전으루. 그런 얘기가 이 고장에 있어.

요 근처가 밥장거리라고 그러거든. 지금두 밥장거리라구 해. 그 밭의 위치를 얘기하려면 에 우리들두 고 근처를 얘기할 때 밥장거리라구 얘기하거든. 왜 밥장거리냐? 옛날, 옛날, 옛날에 이 고장이 여기 요 건너 이 동네가 공세리거든. 바칠 공(貢), 세금 세(稅)자. 세금을 바쳤다는 얘기여, 옛날에. 그저 뭐여, 이씨 조선 때. 그래가지구 삼도에서 배로 배로 이렇게, 열차 같은 게 없으니까, 배루 세금을 갖다 지계를 쳐다가. 이게 창고였어. (앞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면사무소, 옛날 그 곡창, 공세리. 그래서 공세리가 됐구 그래 바닷물이 여까지 들어왔는데 이 동네가 옛날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육백 호가 넘었는데²⁶⁾ 얘기여. 내가 들은 바로는. 지금은 삼백 호나, 삼백 호나 되나? 그 무척 큰 거지. 옛날루 고을이지. 그 비석 그 있잖여. 그 옛날 그 저 도둑놈들이지 뺏찌 가꾸 있는 놈들. 우리 나라 지금도 빼찌 가진 놈들 도둑놈이니께. 세금 받는 놈들 나쁜 놈들. 그래 그저 세금 바치러 쪽 오면 백제에서 와서 세금 걸으로 지금두 여 밥을 사먹는데 쪽 동네 사람들이여 그 중에서두 부지런한 사람들 밥을 팔구 그랬대여. 그래서 밥장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밥장거리라구 하는 거.

다. 인주면 마을 3 (금성리)

1) 조사일정

1992. 6. 27., 이미진 기록

한낮이라 날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금성리는 지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은근히 기대를 하며 사정상 중식도 거르고 금성리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에 '지석범 자선비'가 세워진 곳에 도착하여 자선비 사진을 찍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하여 오후 4시10분에 이미 약속이 된 지석원 씨 집을 찾았으나 집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를 찾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할아버지 두 분을 만났는데, 마침 이분들은 우리들을 기다리던 참이라며 반가이 맞아주며 근처의 '금성리 사무실'이란 곳으로 가, 지종범 할아버지가 <열녀문>·<효부문>·<구룡팔경>·<영바위 장가 가기>·<허준 이야기>등을 이야기했다. 오후 6시에 금성리 사무실을 나와 열녀문과 효부문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나서 숙소로 향했다.

2) 마을개관

【인주면 마을3】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금성리 1구

1992. 6. 27., 권민정 조사.

마을을 덮고 있는 산의 형세가 9마리의 용과 같아서 구룡동이라는 자연부락 이름을 갖고

있는 인주면 금성리 1구는 지씨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다. 마을이 산에 폭 안기듯이 둘러싸여 아늑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총 100세대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소작농과 자영농의 비율은 1:1정도로 나타나고, 마을 내에 교육시설로 금성국민학교가 있고, 공공기관으로 보건소가 하나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오래된 소나무에 둘러싸여 고풍스런 멋을 풍기는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마을사람 대부분이 이 교회에 다닌다. 매년 시월이면 산에서 시향을 지내는, 아직까지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3) 구연자

【금성리 구연자1】

금성리1구, 지종범(池宗範), 남, 90.

1992. 6. 27., 황재영 조사.

현지에서 16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지씨택의 종손으로 한문수학을 했다. 흰 머리로 구레나룻에서부터 흰 수염을 길렀고 나이에 비해 정정하였다. 인주면의 최고 장로이다. 구연을 할 때는 손짓을 많이 하고, 이야기 내용을 흥내내기도 했으며, 조사자들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옆에 있던 청중 한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주고받으며, 맞장구를 잘 맞춰가며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이 없이 술술 나왔으며,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 효부문과 열녀문의 위치를 안내하는 등의 친절을 보여주기도 했다.

4) 설화자료

【금성리 설화1】

인주면 금성리 1구 노인회관, 6.27., 유주연, 권민정, 이미진, 황재영 조사

지종범, (남, 90)

지석범 자선비 내력, 형제소나무, 영바위 장가 가기, 구룡팔경, 효부문, 열녀문, 계바위, 월미래 다리, 허미수선생과 호랑이의 힘내기, 허준선생, 성동(금성리) 고을 내력

금성1. 앞, 뒤

육칠 년씩 흥년일 때 그 분이 전량²⁷⁾을 말이지, 사람들헌템²⁸⁾..... 비가 하나도 안 와. 눈이 푸해갓구,²⁹⁾ 이렇게 해가지구 그걸 그저 밀구 늘여 잡구 이걸 허구서 그냥 밭에다가 켜무하는 것마냥 자꾸 시켜. 이렇게 해서 그런 밀에 하구 (녹음불량) 흥년이 육칠 년씩 이상 되는 이때 그때 가뭄을, 자꾸 심으라구, 그때 대한조림도, 이 뭐 (녹음 상태 불량) 호밀을 심고 허거든. 이 면내를 두고, 면내 일직면을 두고서, 한 삼 년을 두고서, 그 금을 췌어. 데려다가 금일을 췌어. 식구 하나에 뭐 쌀 얼마씩, 그 얼마여? 그거 쥐도 뭐(웃음). 그저 그런 걸루 해서 세 번을 했기 때문에 구휼비가 썼지 뭐.

(조사자가 형제송 이야기를 꺼내자) 여기 저 구룡동이여, 여기가. 우리 저 지씨가 십육 대를 여기, 내가 십일 대여. 내가 종손이지. 십일 대조가 와서 살았는데, 구룡동이서, 구룡이 아홉 구(九)자 용 구자³⁰⁾ 아녀? 구룡쟁주³¹⁾란 말여 지방. 저기서부터 용이 건너 그래서 구룡쟁주, 여기 내 십대조 산소가 거 웃말이여. 그래가지구서 나 아홉 살 먹었을 때 철진에서 강복재 선생님이라구 학자지. 그 양반이 와서 구룡팔경³²⁾을 짓고 갔어. 근데 그 부를께, 가만 있어. (종이와 연필을 찾으며) 적을란지 몰러. 구룡팔경. 우리, 우리가 십육 대를 여기 요 동네를, 여기서 삼태면이 바탕지여. 형제송을 묻길래, 형제송이 팔경에 들어갔잉께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 가만있어. 내가 휴지에다 적어서 줘야 할텐데. 원래 여기 면장이, 내가 저기 인주면에 교사업무여. 다리 하나를 냈다구. 차 타구 와서 모시고 가라구 갔더니 말야. 아 그 애길 첨 들었어. “아니, 저 형제쌍송, 그 내력을 아십니까?” “아, 그 구룡팔경에 드는 철년송³³⁾이지. 그건 난 뭐…….” “지씨 할머니가 심었시우.” 아, 어서 깜짝, 아, 우리 일가 할머니가 심었다는 걸, 우리 저 십일대조가 충성할아버지, 전장에 뭘 하구서, 거기 우리 할머니가 심은 재미.... 지금 곧 갈께야, 며칠 안에 가서. 면장더러 조용히 말해서 여러 가지 채문³⁴⁾을 해가지구 나도 그거를 알아야 되니께. 우리 할머니가 지씨 할머니. (조사자: 형제소나무를 지씨 할머니가 심으셨다구요?) 응, 그래. 엇그제 밀두리가 사고 난 다리가 있어. 그걸 하구서 들으니께 우리 저 큰 소장님이 면장이 차 보내서 “할아버지 오시라.”구혀. “왜 그러?” 그러니께 아 거기 저 다리를 위험해서 옆에 그 철교를 좀 했는데, 그렸더니 거기 테일을 끊는다, 다리 놓는, 난 뭐 하는지, 그거는 제일 먼저 나이 많은 사람이 끊는다나, 그러서 따져보니께 인주면의 내가 최고 고령이라 해서 거기로 갔었지.(녹음 불량) 그 저 “형제송을 내력을 아십니까?” “아, 그 구룡팔경에 드니, 그렇지만 난 그 내력을 몰러. 철년송이라고 하는 것. 그거 난 뭐, 지씨 할머니가 심으셨슈.” 아니, 아주 반색끼가, 우리 할머니가 내력을 말여, 근데 가끔은 술 먹고 어찌고 거기서 이발하고 오니께 말이여. 가서 조용히 좀 가서, 자문을 해서 똑똑히 알아야 겠어. 어떤 책에서 봤느냐? 그런디 근데 그걸 물어려면 구룡팔경이 여기 오면, 구룡팔경부터 적어야 혀. 구룡동이여. 여기가. 아홉룡이 여의주를 물고서 (청중: 아저씨, 저 사람들 모르니까 적어 주시우.) 아, 휴지 좀 줘.

하 물건이 똑똑 (청중: 영하.³⁵⁾ 영하 같으여. (청중: 함량성, 함량성 얘기여.) 영 바위라는 거. 혼이지. 가마 말 타구서 가뜩 지나가. 그거 참, 낭중이,³⁶⁾ 젊어서 양중이, 영하식인디, 천지조화지. (청중: 이 사람들(조사자를 가리키며)은 몰러.) 거기에는 죽어서 행생³⁷⁾이 나가는데, 상제엄설³⁸⁾ 해 가지구서 딱 나가. 그러면 이것이 그 용몸드는³⁹⁾ 그저 그해 당집개가 보면 대길하구, 영바위가, 거기 가 장가간다는 날이여. 그 저 당집 박씨. 아 그 영력한 거, 젊은 사람들도 와서, 아 여기에 영바위, 아 여기 여기 와서도, 영바위, 삽교천 아래.

여기 용길 보월산, 여기 방아고개라고, 요기여 바로. (청중: 지방 저 다녀온 데 얘기하는 거여.) 용지녀가,⁴⁰⁾ 고기잡는 처녀란 말이지. 한자로 쓰자면 전무하지. 모르지. 그거 모르지. 한자로 쓰자면 쓸 줄 알어? 그렇지. 용지녀가. 또 가야모운.⁴¹⁾ 가야산에, 가야산 저기 여기서 보면 바로 저 구룡팔경이여. 가야모운, 한자로 쓰자면 저물모(暮)자하고. 구름운(雲)자하고 쓰는 거구. 또 저기 저 영암신뢰⁴²⁾ 영암신뢰. 영암신뢰. 똑똑히 써 오산낙조⁴³⁾, 까마귀 오(烏)자하고 꼬트머리 가선 해가 여기 금오산이라고 있는 데가 있어. 거기서 지거든. 그래서 팔경이여. 세 봐. 음. 이것이 유아현⁴⁴⁾5)이라. 에 평택⁴⁵⁾에서 강압자라는 양반이 일정초

에, 일정초에, 일본놈들이 여기 와가지구선 말하자면 유지랄까 학자랄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와서 한국을 뭐여? 세 번이나 네 번 샀다는 게 그것이야. 처음에 와서는 그 유지들 입 막느라구, 그 양반은 그 때에 육백냥, 또 여기 저 사백냥 모두 다 주어놔구. 이 양반이 자기네⁴⁶⁾ 집에서(녹음 불량) 학자 양반이 여기 저 행주산에서 지구나니께 (녹음 불량) 오랑캐 죽일라구 먹냐. 거가서 사진을 찍구 샀어도 사진을 안 보내. 수건을 두구 가더니 모두 안, 다 안내해서 찍어 줬지 뭐.

우리 저 지승호⁴⁷⁾의 우리 지가의 십육 대를 산, 이거 뭐 자랑거리야 뭐, 효부문 같은 걸 해 봐. 열녀문을 적든지. 내가 얘기 할께. 열녀문은 이제 완문⁴⁸⁾을 보니까 대강 얘기하는 거여. 저기 완문이 다 있으니까. 십 세, 그 때는 조혼이었지. 열시 살 먹어서 시집을 가는데, 시모가 종창이야. 여기 종창, 옆구리에 종기가, 시방은 종기 없지? 그때는 종기가, 여자인데 종기가 났는데, 그거 뭐 고약이 있어 뭐여? 여 부인들이 여기 그때는 대문 밖에를 부인들이 안나오는 때거든. 그걸 종긴데, 종기가 달구⁴⁹⁾에 안 나고 옆구리에 나고 허니께 저 뭐라 그 래 삼 년을 시방 말로 창이 됐지. 오래 앓으니까. 그 열시 살 먹어서 와서 시모를 삼년 동안, 하두 걱정이 되구 하니 누구한테 언뜻 어떻게 들었든가 봐. 인고기를 먹어. 인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거여. (조사자: 사람고기요?) 사람고기를 먹어야 난다 그거여. 아 그러니까 깜빡이(자신의 옆구리 쪽을 가리키며) 여기서 베어다가 구워. 구우니까 많이 비었는데 상수리만 허드래, 익으니까. “이거 잡수세요, 이거.” “그게 뭐냐?” “아, 뭐 잡썬보시우.” 이게 하, “그게 맛이 좋다. 나 이거 먹으면 낫겠다.” 그래, 세 번을 비어서 자기 불기짝 위서, 여기서 살 있는 디서 떼서 세 번을 비었다. 완문에 아주 그러 있어. 그래서 그래 이제 나섰어.⁵⁰⁾ 그래 효부문이야. 효부문은 인저, 그때는 그런 분이 있다 허면, 원님, 도지사, 시방으로 도지사, 차차 내려서 완문이 탁 내려오는 법이야. 탁 허구선, 하여간 그분은 간지다가서 이것만 허서 여기서 올리면, 내가 냅다 거기다 써, 써서 어떤 산이고 어떤 자리고 나무가 제일 좋은 디다 해서 열녀문을 세워라. 효부문을 세라. 이걸 완문에서 나랏님 도장이 이것만 하게 해서 탁 찍힌 게 온단 말이여. 그러면 아무 산이나 꼭 가서 좋은 나무를 베타기⁵¹⁾ 짓는 거. 거기에도 그 근처가 누구택이냐? 허면 그걸 나라에서 다 짓던께. 그걸 사패지주⁵²⁾다, 줘라. 몇 천 평 몇 백 평……. (조사자: 열녀문이 이 근처에 있어요?) 아 요기여. 요기, 요기. (청중: 몇 밭짝 안 디여.) 요기 열녀문이 있잖아 마주보고. 우리 일가의 자랑거리여. 열녀문, 적어.

그 분은 남편이, 자기 남편이 말이여. 그 또 병이 있어 가지구 수삼 년을 아주 그 약이라는 게 뭐라구, 전부 해가지구서 자기도 별 약 다 있어. 무슨 비밀 약도 있었나봐.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자기두 완밀히, 그래가지구서 또 나라에서 해서 지준 거여) 이 양짜이 마주 보고 있어. (청중: 효부문하고.) 열녀문이야. 열녀문인디, 열녀문인디 증창을 할 때 우리 젊었을 때 어른들이 해서 단청도 하고 해는데, 이 양반이 딸이 사 형젠디 말이여, 두 군이 가서는 열녀하고, 한 군이 가서는 효부하고, 열녀의 자손들, 무후⁵³⁾여, 읍어. 남편 위해 죽은 뭐 시 손이 귀해여. 이름을 날려서, 딸이 둘인디, 두 군데 가서는 열녀가 둘이고, 열녀문이 둘이고 한 군데 가서는 효부문. 그래서 재종형님이 그러지 아 이 양반들 참 그래 물으니까 “열녀 다 났시우.” 그래 열녀집은 그 열녀가 나고, 효자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씨족은 못 한다는 게 그거여, 내력이.

여기 게바위가 있어. 저 그전에 여기 저 강이 있을 때 거기 저 그 강가까지 가서 바위가 하나 있어. 게바위, 여기. 아 저, 홍갑선이, 홍갑선이 아버지가 거기다 흙 갖다 놓구서 지관을 씨겨서⁵⁴) 갖, 저저 해암리 그래서 게바위가 있으니까 해암리 해암리라고 했어. (청중: 거기 게 바위여.) 그 그 해(蟹)라고 허잖어? (청중: 그래 그해여, 그해.) 해암리 바위암(巖)자, 그해(蟹)자, 그래서 해암리여. 그래 거기 큰 역사는 없고.

거기 월미네⁵⁵)1)라고 있는데, 월미네 다리가 저 충무공 전장할⁵⁶) 적에 여기 큰아들이 살고, 그 월미네 다리, 아버지가 전장나갈 때 가고선 월미래가 건느고선, 미래라, 오달 못했다. 그래서 시방 자꾸 비를 세울려고 하고, 월미래. 근널 월(越)자, 게바위 옆텡이여. (조사자: 월미래의 월자가 무슨 월자예요?) 근널 월자 근널 월자 (조사자: 아! 건널 월자) 월, 건너가고, 미 저 아닐미(未)자, 건너가고선 오지 안 했다. 월미래야. 그게 누군고 하니 충무공 큰덕, 가구선 전쟁에 나가구선 월미래여. 건너가군 오질 못했어. 월미래여.

허미수⁵⁷), 허미수 선생님이 절에 가 공부할 때, 들은 대로 내가 허는 거여. 뒤를 보고 있는데,⁵⁸) 절에 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호랭이여. 저놈이 왔다가 슬쩍 돌아서거든. 콩지를 쥐고선, 근데 그땐 목신⁵⁹)이여. 가족신도 좋구, 목신을, 목신을 높이, 그러니까 실제 꼬리를 이렇게 감아쥐고, 쥐고 있지. 그러니까 저거 범은 의심이 많아서 뒤를 잘, 고개목이여. 범 호랭이 의심이 많아서 지⁶⁰) 굴에 원래 들어가서 뭐 할려면 꼬리부터 들어가서, 저의 굴도 의심이 많아서... 아 이러한 짐성인디, 아 뒤서 잤었으니 어떻게? 힘껏 내뺐다고 허면, 예 그 양반, 저 목신 뒷굽이 달막달막한 사람들이여. 그래서 인저 그 호랭이 심⁶¹)이 어떤가 허구서 저 중을 불러가지구선 열둘, 열둘을 받을 배구서 자기가 목신을 친구서 앉아서 심껏 잡아댕겨. 호랭이가 잡아댕기는 심허구 푹 걸여. 목신 뒷굽이 발딱 호랭이가 장정 열둘을 힘을 가졌다는 것도 듣고 또 그 낭반⁶²)의 그 의사된 거, 또 중국 가서 공주 고친 거 그거 얘기헐라면 함참 해야혀. 한국에 의사랄까 몇 명이 있시어.

허준⁶³)씨가 허준이, 빌허(許)자 허씨여. 허준 씨 허준 씨가 장가를 들어가지구 처음에 서울 한 구텡이 구텡이 가서 의원을 한다구 앉았어. 앉았는데, 처음이 뭘알어. 하루는 앉았으니까 아주 표표한 중년이 의관하구서 찾아왔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밥을 해 먹으면 내일 아침이 는 굵게 되는데, 내외 앉아서는 밥을 죽을 쑤 먹으려고 하는 판이야. 근디 손님이 왔으니까 어떡해 저녁에 밥을 할 수밖에 없잖아? 대접을 해야된게. 다 그 난감하지. 예 앉았으니까, 병자가 약을 들여왔어. 근디 (녹음불량) 당최 허준씨는 처음이 그거 안 뵈다가 뭐 믿고, “탕 좀 달여 주라.”고 그러니까 허준씨는 그거, 불러 “왜 그러십니까?” “거 효과가 있거든 곧 기별을 해주고 이러라.”구 간 뒤에 허준씨가 묻는 거여. “그 무슨 병인디 보구서만 그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여, 정승 판서여. 용삼독⁶⁴)이여.” (녹음상태 불량) “저 조금만 계시면 됩니다.” 저 똥똥 떠올라가. 몇 번을 혀. “나 병이 있냐?” 그러면 허준 씨가 “여기 몇 봉 무슨 차루 주라.” 그러다가 “차봉지를 줌....” “예, 걱정마슈.” 간 뒤에 허준 씨가 물었지. “아니 이 양반은 무슨?” 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여. 용삼독이여. 용삼을 많이 먹었어. 용삼독은 근디 용삼독 제하는 게 아무게 법 아녀. 조금 있다 오더니 “그거 났다.”구. 허준 씨가 그렇게 해 가지구서 인제 그가, 자기가 “약재를 할 테면 나를 따라 갈테냐?” “아, 따라가자.”

구. 뭐여, “서울 구미공산으로 가자.” 그래 파적, 거기서 삼 년, 그라니께 거기 파도가 밤에
 막 죽고 사는디, 약초가 나는 대로 약명을 알으켜 줘. 이런 이기면 뭇하고 상벌은 없다. 상
 벌을 알으켜 줘서, 삼 년을 그리하는데, 십 년을 하더니 그 뒤는 전라도 지리산으로, “지리
 산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 약초를 캐야 돼. 자 근디 마누라는 그냥 친정에다 보
 내 놓구, 친정 가 있으라구. 십 년을 정하고 나왔어. 거기서 인저 이 약풀을 캐야, 금강산 지
 리산, 얼루 제주도 한라산 해물, 해풍 공기에 거기서 인자 삼 년을 딱 하고 보니께 구 년이
 여. 구 년인디,(청중: 여기 삼 년, 저기 삼 년) 아, 세 삼 년을 구 년을, 일 년 남았지. 거기
 서 못 살아. “여기서 일 년을 더 있어, 십 년을 쉼⁶⁵⁾ 테냐?” 귀공이⁶⁶⁾ 묻는 거여. 허준 씨
 보구. 하두 집 떠난 지 오라구⁶⁷⁾ 하니께 아 집에 가서 좀 (청중: 친정 가서 허허……) 친정
 가두, 인젠 왔지.(청중: 그랸더니?) 와서 자 있으니까 (청중이 뭐라고 끼어 들려고 하니까
 큰 소리로) 가만 있어! (청중: 아, 말씀하슈. 말씀하슈.) 그러니께 인저 와서 그러카니 와서
 선후가 됐어. 와서 정승자리가 와서 했어 참. 그래가지구서 정승. 그가 가서 국가에 가서 애
 기를 했네. 그렇게 용타구 했더니 아 허준 씨가, 아 그래서 명의를 됐는디, 아 중국 천자가,
 저 대국천자, 형제지국이시, 아 거기 열두 제국, 열두 나라인디, 한 뭐여? 한 나란디 뭐여?
 그 조선, 한국 몇 배씩 하는디, 그래서 거기서 공주가 병이 났네. 공주가 병이 나서 죽게 됐
 어 (청중: 어이구!) 그러면 열두 나라에서 조나라 진나라 뭐하는, 거기서 하는디, 아 이게 와
 선 못 고치네. 자 이 소한국으루다가 “동장이 있느냐?” 이 또 보게, 또 보네. “아, 그거다.”
 그랬어. 그러면 아 여기서는 나라에서 인저 해서, 가서 못을 고쳤어. 주모 하나를 모셨어.
 그 정승이 가서 몇 대, 어 가만 있어. 선조대왕 뎡가 칠십이 넘어가, (녹음 상대 불량) 헨디
 국의가 있지만 안 되니께, 한국에 참, 저 “뭐 해라.” 그러니께 저 뭇이나 허준 씨 해서 보내
 는디 같이 왔지. 같이 와서 십 년 뎡긴 그 사람을 집에 있을 때, 불려서 가니께 급하다고
 해서 먼저 손수 뎡겨서 하니께 “갔다 오라.”구. “가 진찰하구 오라.”구. 가 보니께 죽두 앓
 앓는데 열이 있고, 귀에 때가 찌구⁶⁸⁾, 그 양반이 하여간 더위, 더위를 먹어서 그라니께, 이
 약재 받자, 그 사람이 그 그래 받자. 아 그래서 나아가서 거기 국의를, 한국 국의를 보내고,
 그 훈의 함께 보내고서 허준 씨가 국의로 가서, 턱 가서 있네. 한국에 그러는디 중국서, 대
 국인디, 형제지국인디, 작은 나라, 큰 나라 할 틈디, 아 “공주가 병이 걸려 죽겠다고, 여기
 한국에 명의를 보내라.”구. 아 그라니께 허준 씨가 꿰해 갔지. 또 이것도 했어. 이것두 아 이
 거나 그거나, 여기 국의로 있을 때 하루는 당초에 거 파부수, 파수병들이 있다가 놀렐 노구
 사석이 날리고 허는데, 아 이렇게 앓았응게 뭐가 들어오더니, 보니께, 아 이미기, (청중: 이
 미기? 허허……) 아 한국 쪽에서 두구, 괴기잡이. 이미기가 여 와서 탁 그라니께 앓았다가
 “네가, 네가 뭐 해치러 왔느냐?” 현께 “아니라.”구 그냥 가데. 보니께 여기가 종기가 났는디
 조팝나무 찢려 가지구서, 여기 이러카구 종기가 났어. 그러니께 좋은 고약으로 해서 (손바닥
 을 마주 치며) 탁 부쳐서 보냈지. 그건 있어. 잉, 그건 있는디, 아 중국은, 저 거길 들어 갔
 는디 초콜에 거시기여 (잠시 머뭇거리고 생각이 안 나는지) 아 이런 제기. 북만주 여기 만
 주버팀 거기를 그 아주 그 뭐여? (녹음 불량) 중국서 모셔가는 거 잉. 아 중국 천자 딸이
 누워서 죽게, 한국서, “그럼 보내라.” 허니께, 아 그럼 허준 씨 보낸 거. 아 가는디 중간쯤
 가니께, 아 사석이 날리구 이러니께 그 일꾼들이 전부가 망태기 속으로 들어가구 이러니께,
 앓았응게, 아 이무기가 탁,이거 뭐냐? 그 뭐시여? 불타구니가 벌떡벌떡 서기도 하구, “너,
 나 해치러 왔냐?” 허니께 “그때 병 고쳤다.”구 “은혜 갓았다.”구 벌떡벌떡허더니, 입에서 벌
 떡벌떡하는 침을, 아 그래 받았어. 다른 침도 많지만 이 굉장히 용하구서, 들어가서 보니깐
 깍지쪽만한 천자의 딸, 아 이런 보니께 있는디, 가만 있자, 그래서 “말미를 달라.”구 그랬어.

이무기하구, 와서 인저 사찰하구서⁶⁹⁾ “며칠을 말미를 달라.”구, 이라구 있는디, 열두 제국, 서천 서곡 뒤시가 오더니 “인사를 하자.”구. 거기서 국의여, 거기가. “아니, 그 병명을 알고 오셨슈?”허니께 “아, 뭐 짐작합니다.” “예, 아신다면…….” 열두 나라 국의 갖구 안 되니께, 한국서 데려 왔는지 와서 시험을 보는 거지. 둘은 퇴짜 맞았응께. 아직 생각을 못 허니께. “예, 예. 용될 잉어를 잡어, 잉어를 잡아다가 낚시 질꾼이 팔아서 공주를 해줘서, 지금 그 별을 받았수다. 그러나 이거 침이 있어야주. 약을, 이걸 못해서 난 못 고칩니다.”(청중: 침?) 침! 침은 이무기한테서 은어야 하거든. 아 기절을 하거든. 허준 씨는(녹음불량) 정상이여. 허준, 허준 씨, “그러냐?” 아 그래가지구서 아니, 근디 나두 알우. 서천 서역국? 서역국 국의가 와서 의논을 하는 거. “이거 침을 못 얻어서 못 고칩니다. 병명을 압니다. 병명은 어찌 해서 어찌해서 이리 됐죠.” 아, 이게 용 될 잉어, (청중: 용 될 잉어?) 잉, 아 일년에 한 번 씩 거기 무슨 폭포수에 전부 잉어를 모태⁷⁰⁾ 가지구 뛰는디, 시험을 봐. 몇 전 몇 씨름에 용이 된다. 맞박에다¹²⁾ 한 해 거두고 올라가면 저만, 또 세 번 두 번, 세 번이면 되는디, 그, 그 잉어를 낚시꾼이 잡아가지구선 와서 공주가 먹고선 천벌을 받았어, 시방. 그러니께 못 고친다는디, 못 고친다. 그래 알았어. 그건 거기서 그랬지. 그게 될라니께 그려, 허준 씨가. 어험. 침을 얻었으면. 이걸, 이게 천벌을 줘서 용 될 잉어를 잡아다 먹었으니께, 천벌이니께, 그것을 어찌하면 벼락이 있어, 벼락. 벼락이 있는디, 집을 백 칸을 지어.(청중: 어이구!) 집을 백하니 백 칸을 짓구서 침을 주는디, 한 침, 침 한번 쥘르구서 안구서 돌아치구 그라길 백 번, 벼락을 깨서 안 죽으면 그만이여. 침은 마침 얻었지. 이무기한테 얻었드란 말이여. 그래서 그건 중구구⁷¹⁾ 왔으니께 “집 백 칸을 지어라.” 그래서 마당에다 깎지쪽만한 공주를 안구서 탁 췌서 단번에 처마주대길이여. 탁 하면 거기구선, 탁하면 거기구서, 전부 저기 가서 탁 안구나니께 제자리던 공주가 탁 나. (청중: 웃음) 그러면 그때 만조백관이 나와서 중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손바닥을 치며) 상 타. 금상 타구, 거 나온 거기서 금상을 타구, 이래가지구서 거기를 건너오는디, 중국 대국에서 상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아 그 때 중국, 그 중간차 쉬는데, 그 침 얻은 거기쯤 오니께, 또 사석이 날리구 하니께, 아 놀래서, 이무기가 와서 딱 막고, 혀를 널름널름,그라니께 그 침을 찾으러 온 거여. 근데 참 그 명침을 만났응께 사정을 했어. “내가 살 만큼 살았지만, 한국에 가서도, 내가 중국 사람도 고치고 왔는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건 뭐냐?” “그공을 갚을라고, 그 동해 용왕, 어 들어가서 용궁에 들어가가지구서 몰래 훔쳐 온 침이여. 갖다 누야⁷²⁾하거든. 안 갖다 누면…….” 음, 거기선 주구선 못 가지구 왔어. 허준 씨가 한 일이여,그게.

(조사자가 금성리라는 이름에 대해 말하자) 성동? 음 성동. 저기 있잖아. 금곡이 있어. (조사자: 금곡이요?) 응, (녹음 불량) 쇠 금(金)자하고 고을 곡(谷)자, 금곡이 있어. 그래서 일정 때 고치고 허니께, 어 (생각이 났다는 듯) 금성. 그래서 금성. (조사자: 아, 성동하고 금성하고 합쳐서요?) (청중: 원래, 나 좀 봐, 고을 이름은 구룡곡이여.) 원래는 구룡곡이여. 그래서 구룡동이지, 구룡동. 그래서 저 그래 (기침) 원래는 구룡경도. 팔경을 (구연자와 청중이 서로 구룡팔경에 대해 왈가왈부 하다가) (청중: 아까 팔경 얘기 허신 거.) 원래는 구룡동이여.

라. 인주면 마을 4 (대음리)

1) 조사 일정

1992. 6. 26., 이미진 기록

장영실묘를 다녀와서 곧바로 가려했으나 차편이 여의치 않아서 10여 분을 기다린 후 트럭을 얻어 타고 오후 5시에 미리 연락이 된 윤상응 댁에 도착했다. 이곳 역시 구연자가 별로 없었다. 처음엔 윤상응 할아버지 혼자서 <호랑이 타고 다닌 사람>, <방아개 유래>, <담력센 노인>, <담력 약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윤상응 할아버지의 부인인 지성분 할머니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혹부리 이야기>를 구연했다. 그리고 나서 윤상응 할아버지가 삼강오륜을 주제로 한 민요를 한 곡조 불렀다. 시종 웃음섞인 이야기를 듣다가 저녁식사 대접을 받고 오후 8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인주면 마을 4)】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대음리 2구

1992. 6. 26., 권민정 조사

동음이라는 자연부락 이름을 가진 아산군 인주면 대음리 2구는 총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며 키 작은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많이 서 있다. 도로공사가 한창이라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높이 날리기도 하지만 집들은 깨끗한 편이고 인심이 무척 좋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농사를 짓고 사는데, 생활정도는 별로 좋지 못하다.

마을에 교육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성국민학교와 인주중학교로 나가야 한다. 종교는 기독교와 무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전에는 민속행사로 씨름대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3) 구연자

【대음리 구연자 1】

대음리 2구 41번지, 윤상응(尹相應), 남, 74

1992. 6. 26., 황재영 조사

고향은 서산인데, 일제시대에는 인천으로 또 동경으로 떠돌다가 대음리에 정착한 지는 53년째 되었다고 한다. 사립 영화학원이라는 보통학교를 나왔으며 당시에는 꽤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한다. 구연할 때는 조사자를 보지 않고, 주로 허공을 보고 이야기했고, 두 손을 뒤쪽 바닥에 짚고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대목에서만 손짓을 조금씩 섞어가며 구연했다. 자택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청중은 부인 한 사람만 있었다. 충청도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고, 양반 체면을 몹시 중시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자신을 굳게 믿었으며 실제로 보고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기억을 안 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시대라고 자주 말했다. 삼강오륜에 대한 창을 아주 구성지게 불러 주면서, 창을 할 때만큼 숙연한 시간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대음리 구연자 2】

대음리 2구 41번지, 지성분(池成分), 여, 71

1992. 6. 26., 황재영 조사

윤상응 씨의 부인으로, 금성리가 친정이다. 키가 매우 작고, 눈이 작으며 잘 웃고 목소리가 크고 활달한 성품인 것 같다. 구연을 하는 동안 내내 손짓을 하고 표정의 변화가 풍부했다. 지석범(금성리) 씨와 인척관계로 아저씨라 부르고 있었다. 그 아저씨(지석범) 덕분에 국문해득과 학문을 수학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옛날 겪었던 가난한 시절 이야기는 잘 할 수 있으나 옛날 이야기는 다 잊어서 모른다고 잘 안 하려 하였지만 조사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흑부리영감> 이야기 등을 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대음리 설화 1】

인주면 대음리 2구 41, 윤상응 씨 맥, 1992. 6. 27., 권민정, 이미진, 황재영 조사

윤상응(남, 74)

호랑이 타고 다닌 사람, 방아개 유래, 담력 센 노인, 담력 약한 노인, 흑부리 영감

당진 지끔 우강⁷³이 옛날에 일정 때는 범천면⁷⁴이라고. (조사자: 범천면요?) 삼수변에다가 이렇게 뜰부(浮)자에 내천(川). 지끔은 우강면이라고 그래여. 왜 우강면이냐면 소들·강문 해가지구 소들에라는 소 우(牛)자 쓰고 강문이라는 강(江)자를 쓰고 해서 우강. 됐어요? (조사자: 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옛날에 거기 학교를 다녔어. 좀 다녔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그 학교가 중실리 보통학교였구, 그때 일본 사람 학교였구, 학원이었어. 시립연희학원이려구. 학원인데, 거기 나보다도 몇 년 선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박마름이라고 마름을 크게, 마름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름이라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사람을. 잉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그러고, 관리하는. 응. 그 넓은 들에 한 삼분의 일 정도의 토지를 그분이 관리를 해. 근데 그 손자는 박수연이, 박수연. 박수연이는 나보담 일년 후배. 이놈 학교 갈 적에 보면 다른 사람은 흘적삼 입구 도시락은 싸는데 꼬치장, 꼬치장. 이놈은 그게 아니고 아무 때구 뭐 보리라는 것은 상대를 해? 하얀 쌀밥을 짝 지어서 항상 가. 거 박마름의 손자, 말하자면 그 박씨의 증손. 근데 고 옆에서 사는 김씨도 한 분 있어. 그 백씨가 보통 백씨가 아녀. 그 한번은 어딜 갔다오다가 “야, 이거 집을 워터게 가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느닷없이 앞이를 보니까 범 하나가 밭을 싸악 들면서 눈이서 인저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여. (조사자: 예.) “야, 잡아먹을러면 날 잡아 먹어라.” 거 봤더니, 요 뭐여? 이렇게 혀. 야, 이거 잡아먹을러면 뭐, 이거 이상하다. 할퀴질을 할텐데 (녹음불량) 이놈이 이상하다 말여. 수상하다 거 덤비지도 안 허구, 앞에는 이, 그런 짓을 하더라구. “아, 이거 저물었는데 기왕이 이렇게 된 거 타구서 산으로 도망을 가자.”고, “한번 타봐야겠다.” 구. 응, 그 사람이 또 담력이 세가지구 타봤다 이거여. 타보니까 그 뭐 순식간에 달려, 턱 그냥 즈이 집 앞에다 탁 내려놓드라 이거야. “야, 이상하다.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나 고생

안 시킬려구 태워다 주는디 관둘 수 있나.” 야 옛날에 으른들은 (녹음불량) 그냥 보내선 안 되지. 그때에 그 김씨도 양반이라 양반체면 지키느라구 하인들 데리구, 몇 명은 읍어. “아무 개야!” “예.” “그 개 하나 갖다 여기 (녹음불량) 신령 내려 오셨다구 대접했다 말여. 개 한 마리. 방이서 쳐다보고 으릉, 쳐다보고 그런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오는 날만 되면 태워다 주는 거여. 근디 그렇다고 해서 그 외상 읍어, 개. 개 한 마리 보구 태워줬다는 거지. 흠이는⁷⁵⁾ 그거 아녀, 진심은. 그러구 또 원래 이 보답에 예를 두게 뒀었어. ‘호랑이가 뭐 그런 것을 해주면은 그 보답으로 개 하나 줘야한다’하는. 옛날 전해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그전이 당아개, (녹음불량) 여기 사는 생활풍,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뭐 그런 것이 (녹음불량) 그 얘기를 당아개라고 당아개 하는데 북개천 매립에, 여기서부터 옮기는 이게 다 바다여 바다. (조사자;예.) 서해바다. 잉. 삽교천 막아가주구 지금 저수지가 됐지만 응? (조사자;예.) 그 이 당아개, 당아개, 왜 당아개냐면 요 앞에 요 북개천 내려와가주구 냇가 쪽으로 내려온 그(녹음불량) 옛날에 당이었어. 당 그 당아 용자⁷⁶⁾ 해서 용포3). 이것이 당아개 그걸로 해석을 풀이니까 당아개. 당할⁷⁷⁾ 용(春)자 갯 포(浦)자 용포라구.

그 분은 지금도 그러이. 혼자 이렇게 밤중에 생여집 근처에 지나갈라면 몸이 이렇게 되가지구서는 말이여 이상스럽게 이? 아무 것도 아닌데 말여. 거 생여집이 별 거여. 이? 사람 죽으면 말하자면 담아다 내뿌리는 기구 갖다 두는 집이여. 근께 아무 것도 아니란 말여. 근디 옛날엔 행 귀신, 뭐 시체에서 뭐가 나오고 어찌구 한다고 이 야단을 해가지구서 사람을 놀래 주려구. 무섭게 맨드느라구 잉 그런 얘기를. 그땐 에 보통학교 육 학년이나 중학교 삼학년 때지. 아니다. 고등학교 삼학년 정도는 되겠어. 나이가. 고등학교 삼학년. 그러구 우리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부재⁷⁸⁾가 학교 다니는 길여. 아버지는 육학년이고 아들은 일학년이여. 그러다 보면 아버지 나이가 올메나 한 스물댓 살 먹었어. 스물댓 살 먹은 놈이 아들을 일찍 낳어. (조사자: 예.) 그때는 뭐 말하자면, 열대여섯 살 먹으면, 장가 들어가지고 그 열대여섯 살에 아버님하고 스물일곱 살에 아들 장가들이고 스물일곱 살에 아들 장가 들인다고 말여. 후회하고 스물일곱 살에 사돈보고 그랬는디 아 판사람 아녀. 여기 저 이우지⁷⁹⁾ 해암리 사는 사람인디 금성리 와서 장가들었어. 지금 다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끌어오는다. 여기 부재 같이 지내는다. 우스개소리 하느라고, 즈이 아부지보고 “애, 느시⁸⁰⁾들은…….” 어찌구, 형제간 같으지 뭐. 그랬는데, 그 담력 세단 그 사람, 그 뭐이냐? 그때는 어디서나 노래를 듣는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있다 하면 이 키로 삼 키로 되는 데를 걸어갔어. 걸어서 말뜰까지. 방에서 얘기도 듣고 얘기책도 언술도 듣고 그랬다구. 옛날엔 그게 말하자면 유일한 유흥기관이라고 해. 어디 가서 볼 것 들을 것 읍으니까. 얘기책 하나 육십 전 짜리, 한 십 전 짜리 얘기책 한 권 사다 놓구 그걸 다덜 그럭 보는 거여. 저녁마두 날마두 본 걸 또 보구 또 보구 또 보구. 응 그 옆이서 듣기를 뭐 심청전 같은 거여 말여, 이 날마두 우는 겨, 날마두 울어. 하루 저녁만 울어두 될 걸 날마두 운다구. (일동 웃음) 그래 그게 유일한, 정말 유흥기관이구 휴식처라구 얘기혀. 놀이방이구. 야, 이거 파리가 많이 들온다. 그랬는디, 그 분이 사는 데 놀러다니는 방은 여기서 뭐 밀두리 반은 가야 되는 길, 한 이키로 이상 되는 겨. 그런데 거기 마실 가,⁸¹⁾ 저녁 먹고 마실 가서 놀다가 아 열두 시쯤에 한 새벽녘에 와. 겨울에 새벽녘에 집에 갈 때면 밝드락 참 시킵혀.⁸²⁾ 그러디 마을로 가로지르는 산모랭이 하나를 돌

아야 되는, 마실 가는 사랑방이 있는디, 거길 가는 길, 거 가운데 상여집 하나가 있어. 상여 집이라는 게 보통 좋은 디다가 안 겨유. (조사자: 예.) 후미진 디 갖다가, 외딴 디 갖다가, 이 이렇게 지어 놓기 땀에 이상스럽게 미서운⁸³⁾ 소리하면 더 미서워져 보인다고. 대개 지금 까지는 그러. 동네 한가운데다 생여집은 절대 안져. 아, 이만큼 동구 밖에다 내다, 여기 생여집도 공동묘지 옆이라구. 그러니께는 생여집 옆이 미섭잖여? 자꾸 미서워. 근디 새벽이 이렇기 오는데 생여집을 이렇게 지나갈려니까 그냥 (녹음불량) 기가 막히게 애절한 소리로 막더란 얘기여. “할아버지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별소리 다 헤가면서 처량스럽게 우는디,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이 선창은 사람 같으면 거기서 미서워 가지구서 뒷걸음쳤어. 도망쳐서 냅다 달음박쳐서 내뺐으면 할 텐디, 거기서 또 듣고서 서있었다 이겨여. 한동안을. 근디 나르르 하면서 어으 죽는 소릴 혀. “야, 이거 이상하다이. 생여집이 웨이가 들어 이러냐?” 고작 그때는 갖고 다니는 게 성냥밖에 읊어. 불 키고 불 놓는 이 후래시같은 것도, 이게 그때는 찾아 볼 수 읊어. 있어두 거 말하자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아무나 못 갖구. 이 들어가가지구 이렇게 빛으로 먼 곳을 불라구 성냥통을 찾으니까 아구 이게 뭐여. 구름재근이라고 이 위다가, 생여 위다가 이렇게 포장 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냥 들썩 들썩해. 그거 담력 세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것 보구 뒤로 기절해 나자빠진다고. 그게 왜 들썩거리겠어. 기가 막히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말로 으-으 하는데, 아이 증말 아무도 그거 무서워서 뒷걸음질 한번 치지 그거 위디 못 떠들어 본다고. 생각해봐, 떠들어 보겠나. (조사자: 아, 못하죠.) 지금 암만 밝은 세상이라두 총 같은 거 갖구 다녀두 그거 떠들어 보겠나, 못떠들어봐. “야, 요놈아. 왜 춘디⁸⁴⁾ 와서 까불고 그러고 땡이고 있어?” 냅다 소리치니까, “아이구, 할아버님 사려 주세유.” 그래 그러니 이게 올매나 더 미섭건나구. 근디 뭐 떠들어 보니까 그지가 거기 하나 들어가가지구 취서, 그 거기 저 이런 것덜을 덮고, 이걸 이불마냥 덮었어. (조사자: 거지가……. 일동웃음) 이그 덮고서 그냥 이게 막 떨으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겨. 그러면서 관두고 말 수 읊으니까, “엠마, 얼어 죽지 말고 잘 자. 가리지 말구 덮어, 덮어.” 덮어주구 나왔어. 그렇게 담력 세다는 분이 직접 이 이 은지서 살았어.

여기 와서 저 무섭탄다는 얘기는, 그런 노인네가 여기 이 동네도 하나 살았지. 내가 참 그 노인네 때문에 술한 고생했지. 저기는 대음리 일구구, 여기는 대음리 이구여. 그랬는데 저기 요 시간만 되면은 그 분이 위디 출타했다 오구, 집엘 혼자 못 가구 꼭 우리 집에 와. 왜 그냐? 여 공동묘지가 있거든, 여기. “아무개 집 있냐?” 나이가 우리보다는 한 사십여 세 더 자신 분여. 그래 지금 그 분이 살았다고 하면 한 백열댓 살쯤 될 겨. “예.” 나가. 나가기가 무섭게 손을 짝 잡는 거여. 무조건 무슨 아무 이유없이 손부텨 짝 잡어. “할 수 읊어. 나 좀 데려다 주게.” “아, 손 놓으세유. 데려다 드릴께.” “아녀. 다른 데 갈라구?” (일동웃음) 허허. 그 내가 거까지 참 꼭 뵈셔다 드려야 되어. 위디 갔다가 꼭 요 시간만 되면 그러. 헤가 조금만 남으면 미서워서 못 가는 거여. 그렇기 미서움을 타. 인저 일본군, 왜정 때는 지금 길 이 이렇게 크게 났지만, 큰길 옆이는 그 뭐라고 그러든가, 그 회막대 세워 놓은것 있잖여. 에 그러니까 그게 차 다닐 적이 주의하라고 말하자면 거 방패여 방패. 응.(녹음불량) 어떤 때는 가다보면 이 낭반이 술에 잔뜩 취 축 누워있어. 그 며느리는 날마두 빨아서 다듬이, 지금은 그냥 썩썩 다리미로 쓰며는 옷감이 좋으니까, 옛날이는 광목이나 옥양목같은 거 깨 갖이 빨아서 다리면은 그냥 다듬는대로 또 다, 다, 땡겨야 혀. 전부 땡겨서 빨아가지구 다,

다시 꿰매야 혀. 그렇게를 이제 매일해서 시방 그러키니 염색을 한 옷 같으면 이틀 사흘 입 어두 드럽진 않여. 근데 하얀 옷이란 말여. 하얀 옷. 이? 이 하얀 두루메기 그냥 이걸 입구 눈이 가서 그냥 드러뉘서 자. 눈이 가서 눈구멍이를 휘휘거리고 있는 거여, 그냥. 나만 믿구 그러는 거여. 이 “아무개네 눈이니께, 눈이 왔다.” 나보고 “가만 나 데려다 줘야지.” 또, 거 기 들어 앉아서 자. 그런 일이 뻗번 있어. 그렇기 무섭을 타는 사람 이우지 살았어. 그 이름 도 내가 알지만 이름 같은 거 밝힐 필요도 없구.

윤상응 씨의 부인인 지성분 씨가 흑부리 영감 이야기를 하자, 한참 듣고 있던 윤상응 씨는 이야기 숨씨가 못마땅하다는 듯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이 다시 구연했다.

워편, 참 옛날에, 참 가난한 남자가 흑이 한 쪽이가 이렇게 나가지구서 맨날 나무해서 팔아 가지구, 그 부모를 나무해서 팔아가지구, 아침 저녁 조금씩 뭘 팔아가지구, 참 이렇기 대접 하구 사는디, 하루는 가서 소리를 하니께 도깨비덜이 확확 몰려오드라, 도깨비덜이. 근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냐?”구. “으째서 그렇기 노래를 잘 허느냐?”구. “그 노래 좀” 하니께 그렇게 “나는 노래를 입이서 안 나오구, 이 흑에서 나온다.”구. “이 흑에서 노래를, 이 흑에서 나온다.”구. “그걸 팔으라.”구 하드라. “아니, 안 판다.”구. 그래서 뭐 뻗 냥을 주고 그 흑을 팔았는디, 인저 도깨비들이 암만 그걸 붙이고 노래를 할라는디 (윤상응: 얘기를 할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놈의 노래가 나와야지. “에이, 못 쓰겠다.”구 그 흑을 갖다가 붙여 주구서 또 한 쪽을, 워쳐케서 흑을 또 갖다 그 흑을 갖다가 붙여 주드라. 흑이 두 개가 된 거여. (윤상응: 에이.) 해 봐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녀. 쌍흑부리 얘기는 그렇기 되는 게 아니구 옛날에는 먹을 거 위주로 했 기 뻗이 나무를 해다가 팔아야 식량을 준비해서 밥을, 죽이래두 먹어. 나무를 하러 갔는디 나무를 인제 많이 해갖구 올라오려니께 비가 와가지구 말여. 이렇게 중 외지간에 비를 피하 고 있는 중인디 그럭저럭 해다 보니께 날이 저물어서 인제 어둡서 집을 못 오는 겨. 그렇게 이제 배는 고프지 집인 가야졌지 심난하니께 흥얼흥얼 했던 말여. 노래같지두 앓은 노랠 했 어유. 그랬는디 도깨비들이 들어봉게 참 괜찮거든. 이놈들이 몰래 가가지구 한창을 그걸 듣 구 개걸거리다가 “소리가 이 흑에서 나오지?” 이렇게 묻더라 이거여. “아니라.”구. “흑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구. “내 목소리서 나오는 것 뿐이라.”구 하니께, “아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노랠 못하는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이 흑이여. 그흑 내기다 팔라.”니께 “흑 은 인제 팔 수도 읊는 거구, 흑에선 소대끼⁸⁵⁾ “흑에서 나온다.”했거든. “에이, 요놈이 그짓 부렁한다.”고 말여. “너 이 흑마저 붙이고서 좋은 소리하라.”구. 먼체 떼간 흑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이 사가지 읊는 놈!” 이렇기 뒸다는 얘기여. 이 욕심많은 사람이 결국이 손해를 본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으야 한다, 그러니 정상적이어. (조사자: 너무 재미있어 요.)

【대음리 설화2】

인주면 대음2구 41., 윤상응씨택, 6. 26.,권민정, 임진, 황재영 조사.

지성분(여, 7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금도끼 은도끼.

다음1. 앞

옛날에 하두 가난하구구, 아들하구 딸하구 두 남매를 두구 뉘편네가 죽어서 살 길이 없어서 남의 잔칫집이라는 잔칫집이 쫓아 댕기매 일을 해주구서는 그애, 남매 애들을 줄라구 떡을 해서 이고 오는데 어디쯤 가다 한 고개를 이러키 오니께, 남매 그 쪼끄만 애들 남매만 두구서. 그래 지덜은 해 다 가니께⁸⁶⁾ 지 어매만 기다리는 겨. 거기서 그 고개 호랭이도 많다는 고개디. 그래인저 그 쪼끄만 남매들이 그러키 지 엄마 때문에 걱정을 하곤 하는데, 참 밤에 지엄마가 떡을 애덜 줄라구 떡을 은어갓구 이러키 오는데, 한 고개 넘어 오니께, 어떤 호랭이가 탁 막구서 으르렁거리구,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해서 인저 떡을 주구,또 한 고개 오면, 또 그라구 또 그라구, 몇 고개 오니께 떡이 하나도 없는 겨. 호랭이한테 다 뺏기구. 그라구서 인저 머여. 떡이 없어. 또 한 고개 오니께 “팔 한 짝만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 팔 잘라줘. 또 한 고개 넘어오니 이쪽마저 잘라줘. 또 한 고개 넘어오니께 이 다리까지 다 잘라 먹고. 호랭이가 다 먹은 겨여. 그래 인저 호랭이가 다 잡아먹고 없으니, 그 어머니 옷을 입구서 마저 집이 와서 애덜을 잡아 먹을라구 “애덜아, 내가 니 엄마다. 문 좀 열 어라.” 인저 가서 문을 두들기는데 “어찌 엄마,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유.” 그러더라. 그래 “아녀. 니 엄마여. 여봐라. 옷봐라. 니 엄마 옷여.” 그러니께. 아니라 구래. “그러면 문구녕 속으로 손고락 좀 내보내라.”구 해. 손고락을 내보이니께 털이 잔뜩 붙은 겨. “왜 우리 어머니 손가락은 털이 없는데, 털이 잔뜩하냐?”구. 열두 고개 오다가 다 뺏긴 겨. 그랬는디 안 되겠드려. 그래. 뒷뜰에 가면 소 여물 쓰는 작두가 있는데 거기다 털을 다 깎구서 “여보라.”구. “이거 니 엄마 손고락이라.”구 드밀었다는 겨. 그러니께 인저 문을 열어 쫓는디 지 어매가 아니구. 옷은 지 어맨디, 지 어매가 아니구 호랭이더라. 그냥 그 남매가 여동생 하나 지 오빠 하난디, 남매가 가서 그냥 뒤란으로 이러키 가가지구선, 이러키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막 울러간 겨여. 남매가. 그런데 그 밑이가 우물가가 있구. 샘이 이러키 있는데. 이러키 나무 올라, 샘이 이러키 들여다보면 그림이 비치는 거 아녀. 그림은 비치데 물이 있으니 들어갈 수 있어? 호랑이가. 그래서 인저 나무 쳐다보면 게덜 있구. 물 쳐다보면 게덜 있구. “애덜아, 니덜 어떻게 나무를 올라갔니?” 그러니께 지 오빠가 남자 아이가 “이웃 집이서 참 기름을 갖다가 이러키 발르구 올라오면 잘 올라온다.”구. 그러니 지름을 발랐으니 쪽 미그러지구, 쪽 미끄러지구, 그러니께 그 여자 아이가 순진하게 “아니유. 저 이웃집이서 도끼 하나 얻어다 콕콕 찍으면 꺼칠꺼칠해서 올라온다.”구러니까 아, 이웃집 가서 뒤져보니까 도끼가 있어. 그 늪으로 콕콕 찍으니 얼추 올라갔지 뭐여. 그러니 게덜도 호랭이한테 잡히게 생겼어. “아이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릴려면 혼 동아, 아니 죽일려면 혼 동아발 내리구 살릴려면 새 동아바 좀 내려달라.”구. 하늘을 쳐다보면서 애원하니께, 아이 참 동아발이 하늘에서 쪽 내려오니께 그 늪을 타구서 이러키 올라간 겨여. 하늘루. 그래 마음이 착하니께 그렇지. 아 호랭이 역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하나님, 살릴려면 현 동아바, 참 죽일려면 현 동아발 내려주시고 살릴려면 새 동아바를 내려달라.”니께 다 썩은 놈의 동아바를 내려줘서 얼추 올라가다 탁 끊어져 가지고, 왜 그전이 발이 수수깁이, 이러키 빈 겨. 푹 떨어져가지구 그늪이 퐁고녕이 콕 박혀가지구선 그 자리서 죽구, 그 남매는 그래서 그렇다. 남자는 해가 되구 여자는, 아니 참, 남자는 달이 되고 여자는 해가 됐다. 그래서 이러키 눈이 시구 저기 남자는 달이 되고 여자는 해가 됐다는 구먼. (청중: 한 가지 보충을 덧붙여요. 호랭이

가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이니까 끊어져서 푹 떨어졌지. 푹 떨어져가지구서 인저 거시기 수수깥이가 찢렸는디 거기서 피가 나가주구 지금두 수수깥일 이러키 벼 보면⁸⁷⁾ 피가 빨갭게 들어있어요. 수수깥 이러키 벼 보면 빨간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랭이피 허랭이피 그런다구. 그걸 하나 빠췌다구.)

옛날이 어던 사람이 가난해서 나무를 해서 팔아서 먹구서 참 부모네를 봉양할라구 맨날 도끼를 이구서는 나무를 이러키 비어다가 파는디, 한 번은 저 나무 하다가 도끼가 잘못 어터키 해가지구서, 산에 그 썸이 있던 디, 그리루 풍덩 들어가구 도끼가 없어. 나무를 못혀. 그래서 그냥 걱정을 하구 이러키 있는디, 산신령이, 이젠 이게 다 부모게다⁸⁸⁾ 잘 해니께 이러키 뵈어. 산신령님이 하얀 옷을 입구 나타나서 “왜 여기 와서 이력허구 있느냐?”구 허니께 “아, 신령님, 그게 아니구 이러저러 해다가 나무를, 이걸해서 팔어야 우리 어머니 저녁이래두 해드려야 할 텐디 도끼가 어디에 가 빠져서, 못 건져서 아력허구 있다.”니께 그 못이서 도끼를 이러키 건져서 주는디 은도끼를 꺼내 주더라. “이게 니 도끼냐?” 이게 인저 사람 심리 뽑어 볼라구 한 거지. “아니예요. 제 도끼는 은도끼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구선 인저 이러키 놓고서 금도끼를 또 던져췌다. “이게 네 도끼냐?” 하니께 “아니예요. 저런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랬다. 그래가지구선 인저 쇠도끼 건져 내노니가 “그럼 이게 니 도끼냐?” 하니께, “예. 이게 제 도끼유.” 그래더라. 그래가지구서는 냐중이 은도끼 금도끼 쇠도끼 다, 신령님이 다 췌다. 그 저기를 그래가지구 부자가 뵈는디, 그 이웃 사람이 또 얼마나 배가 아프겼어? ‘나무 갔다 이력해서 도끼를 이만저만해서 빠췌는디, 신령님이 와서 이러키 은도끼 금도끼를 다 밑이서 건져줘서 이러키 부자가 뵈다.’는디. “거가 어디냐?”구, 일러줘서 인저 가서, 저도 인저 나무를 갔다. 그건 일부러 물에다 풍덩 쳐눈 거여.⁸⁹⁾ 그래서 지가 부러 쳐놓구. 그래 신령님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그랑께 인저 쇠도끼를 먼저 뵈더니 “이게 네 도끼냐?” 그라니께 “아닙니다.” 은도끼 건져주고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금도끼 건져주니께, “이게 네 도끼냐?” “예, 그게 제 도끼요.” “에라, 이 요 녀석아!” 하고서는 은도끼 금도끼 다 뵈어가지구서는 그냥 그 사람은 췌닥 망했다. 은도끼도 못 잡구 금도끼 쇠도끼도 못 잡구. “너는 이거는 악이구, 이거는 안 되니께 너는 이 도끼 줄 필요가 없구 너 갈디루 가라.” 그라구서 말아서 그 사람은 췌닥 망했다구 그라대. 그런 얘길 들었지 뭐.

마. 인주면 마을 5 (도흥리)

1) 조사 일정

1992. 6. 27., 이미진 기록

조사 이틀째인 6월 27일, 10시 30분에 숙소를 나와 사전 조사 때 약속한 강태후 씨를 찾아갔다. 도흥2구에 있는 강태후 씨 댁으로 11시 15분에 도착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근처의 다른 구연 가능자를 찾아다니다, 집에서 마늘을 엮고 있던 유씨 할머니를 만나 <열녀 이야기>, <산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의 구연도 불가능하고 구연상태도 좋지 못해 11시 45분에 그 집을 나와 다음 조사지인 해암리로 향했다.

2) 마을개관

【인주면 마을 5】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도흥리 2구

1992. 6. 27., 권민정 조사

아직도 정월 대보름에 산제를 지내는 인주면 도흥리 2구는 섬말이라는 자연부락명을 갖고, 총 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곧게 뻗어난 도로 옆으로 펼쳐져 있는데, 뒤로 보이는 얇은 산에는 밤나무가 많아 밤꽃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이촌향도로 빈집이 많고, 사람 만나기도 무척 힘이 들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농사를 짓고 살며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종교는 기독교보다는 불교를 많이 믿는데 유교가 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마을이 텅 빈 것 같은 쓸쓸한 느낌을 준다.

3) 구연자

【도흥리 구연자 1】

인주면 도흥리2구, 유씨(柳氏), 여, 80.

1992. 6. 27., 황재영 조사

공주에서 이곳 도흥리로 시집왔으며, 60년째 거주하고 있다. 학력은 없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 한다. 조사자들에게 호기심을 가졌으나, 나이가 들어 다 잊었다며 잘 이야기해 주려 하지 않았으나 동네 입구 어귀에 있는 정문 이야기를 꺼내자, 자기 집안의 정문이라며 열너문 이야기를 해 주었다. 단정한 용모이고 치아가 없어 발음이 상당히 부정확했다.

4) 설화자료

【도흥리 설화 1】

인주면 도흥2구, 유씨댁, 6.27., 권민정, 이미진, 황재영 조사.

유씨 (여, 80)

열너문 이야기, 산제 이야기

젊어서 혼자 댘단 맡여. 애기 하나 낳구 혼자 댘는다, 거기 나쁜 사람이 새치기 헐라구 손을 쥐었어. 손을 쥐었는디 그 손을 잘라버렸다. 드립다구. 찢러.(조사자: 누가?) 그 할머니가. 찢러 버리구서는 정문을 집안에서 한 거여. 집안에서. (조사자: 저게 어느 집안이예요?) 강서방네.

여기는 정월 열나흘 날에는 산제를 크게 하거던. 대동산제를 해가꾸 (조사자: 대동산제요?)

대동산제. 아침이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 그러면 아들 있는 사람은 다 지내. 저 옛날부터 하나 전사당한 사람이 없어.

바. 인주면 마을 6 (문방리)

1) 조사일정

1992.6.26., 이미진 기록

조사 첫날인 6월 26일, 오후 2시 55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사전조사 때 미리 약속한 김용석 씨를 만나기 위해 3시 35분에 인주면 문방리 110번지 문방슈퍼에 도착했다. 슈퍼 안에 노인 서너 분이 있었으나 구연 가능자는 김용석 씨 한 분밖에 없었다. 이 할아버지가 <장영실 묘소의 유래>, <능구리 바위>, <등짐장사보다 예전에 못 미친 이토정>, <토정 선생 죽계된 내력>, <산제에서의 경고>등을 이야기했다. 구연자가 한 사람인 것에 비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근처에 있다는 '장영실 묘' 를 찾아내기 위해 문방슈퍼를 오후 4시경에 나왔다.

2) 마을개관

【인주면 마을6】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1구

1992. 26., 권민정 조사.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1구는 예전에는 민마루라고 불리웠었다. 마을에 들어서면 포장된 길을 따라 아름답디 나무가 늘어섰고 멀리 솔밭이 바라 보여 한적하고 깨끗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리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런 대로 멋을 풍기는 장영실 묘소를 만날 수 있다. 총 103세대가 이 마을에는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6, 7가구가 어촌마을로 다니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의 1/3이 소작농이다. 마을 내에는 학교가 없어서 국민학생들은 신성리 국민학교로 나가고, 중학생들은 인주중학교로 통학한다. 종교는 천주교와 불교를 많이 믿는다. 예전에는 보름날 풍물놀이가 있으나, 지금은 전래하는 민속행사가 남아 있지 않다.

3) 구연자

【문방리 구연자1】

인주면 문방리 1구 110번지, 김용석(金容錫),남 69

1992. 6. 26., 황재영 조사

현지에서 7, 8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을 하고 있다. 조사 날짜가 연기되는 바람에 많은 노인분을 모실 수 없었으며 청중 없이 밀두리 슈퍼마켓에서 혼자 구연해 주셨다. 젊었을 때 다친 눈이 재발하여 눈수술을 받고 안대를 했다. 깔끔한 용모에, 마른 체구로 구연을 할 때

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짓을 많이 했고, 얘기 도중 발을 툭툭 치며 박자를 맞췄다. 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인들처럼 못 배워서 이야기를 못한다거나 문헌상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못한다는 등의 말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성의껏 친절하게 구연해 주었다. 자신감 있게 말하며, 동네 사정에 환했다.

4) 설화자료

【문방리 설화1】

인주면 문방리 110번지, 1992. 6. 26., 유주연, 권민정, 이미진, 황재영조사

김용석(남, 69)

<장영실 묘고의 유래>, <능구리 바위>, <등짐장사의 예견에 못미친 이토정>, <토정 선생 죽게 된 내력>, <산제에서의 경고>

여기 뭐여, 장 장군 묘소가 있는 것은 거 뭐여?(조사자: 예, 장영실) 이 장영실 선조지, 시조. (조사자: 장영실 시조요?) 응. 장영실이가 칠대손이니까. (조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애긴데요?) 그 분이 중국서 나와가지구, 중국서 나와가지구 여기 와서 살다가 그 아들두 그렇게 여기다 묘를 썼는디, 실제묘. 그 손자가 인저 저기해서 정사를 배우다가 여자를 은어가지구서 처가살이를 하면 그리 내려가지구. 그래가지구서 몇 해 인저 댕기다가 실체를 했어. 댕일 수가 없어가지구. 그때만 해두 걸어댕기는 시절 아냐? (조사자: 예.) 그래서 아산 장씨라구 그러기가, 중국의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 그러니께 장장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네들 족보에는 장승상이더라구, 잉. 그러니께 우리 한국의 왕은 그 당시보다도 지위가 높았어. 우리나라 왕은 대왕이구 거기는 천황 아냐? (조사자: 예.) 이거 아들이어서 따지면 지위가 우리 한국 왕 지위보다 높았었다 이거여. 그저 저, 거, 거기로드, 인제 점수로다 봐서는 그랬더니, 해다보니까 돌아당기다가 여기를 내려올 적에 이제 그 사람네들 우리의 전설은 몰르고 그 사람 보첩⁹⁰⁾에 기록이 된 걸을 보면은, 뭐냐하면은 중국에서 그 그 사람 머리가 좀 예민했던지 그렇게 시방으로 말허른 자기가, 아버가 왕이면서 국무총리나 뭐를, 아마 등용을 시킬라구는데 정세가 어지럽구 하니께 도망질을 했어. 그 저기 그때 뗏이 달아난고 하니 장승상이 장국장님이라고 그 분하고 평택 인씨라고 있어, 평택 인씨. 해주 오씨가, 세 분이 아주 그 같이 데리고선 동반해가 주구 도망간 겨. (조사자: 평택 인씨하고요?) 해주 오씨. (조사자: 해주 오씨요?) 응. 그래서 와가지구서는 여기와서 의형제루 지내다가 헤졌어. 그래가지구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은. 에 저기하다가 실체를 해가지구 그랬는디, 저분이, 명장이 있기 땀이 세준 겨.⁹¹⁾ 실제니께. 저 썼는 거 저거는 뭐냐? 저 한 이십여 년 전이 새겼는데, 그 저기 기록을 보면, 전설을 보면, 그렇게 한 백여 년, 한 백여 년 후에 와서 그 자리를 셋이 와가지구 철장으루루다가 질러가지구는 묘소를 찾으려고 왔었다 이거야. 그랬는디 이 하나가 눈이 멀어가지구선 떨어져 갔다는 전설이 있어. 전설이 있는디, 저 사람네들 보첩에두 기록이 돼 있어. 그랬는디, 그러자 여기에 그 옆의루다 질이 났었는데, 질이 났었는데, 옛날에 조랑말, 양반들이 조랑말 끌고 다니지. 얹여? 말 타구. 그러면 그 앞의루다 내려서 가지 얹고 그냥 저기하면, 담뱃대, 옛날에 진 장죽을 얻어서 거기다가 장주가⁹²⁾ 붙으면 떨어지질 않았다. (조사자: 장주요?) 잉. 담뱃대를. 그렇게 그 명장 앞이 말여, 함부로다가 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 전설이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구선은 그기가 인저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니께 당을 모셨어. 산제당을. (조사자: 예.) 산제당을 모시고, 동네 사람을 위
한 겨. 응. 거기서. 그래여. 그러다가 전설의 맨 위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 이거 고려 중엽에 중국서 왔거든. 거 인제 고려 중엽이니께, 고려 중엽에, 이조
오백 년 지났으니 한 육칠백 년, 오륙백 년 된 거 아녀? 그래서. 그러다 이십 년 전에 장상
엽이란 사람이 찾아 왔어. 근디 찾아 왔는데, 뭐냐면은 그니까 이거만한 두꺼운 책에 우리
한국의 전체 그 주소 나와가지구 저기한 것을 떠들어봐서 읍더라 이거야. 그런디 옛날에는
우리 군민이 틀렸어. 여론이 틀리구. 그니까 옛날에 아산고을이지만은 거기가 이선면이고,
문지리 후렴이었다 이거야. (조사자: 문지리 후렴이요?) 후렴. (조사자: 후렴이요?) 잉. 묘소
가. 후렴이었다. 거 문방리의 뒷쪽에 “일 년에 한 번씩 선님네들도 말여, 저길 했다 말여.
제사를 올린다 말여. 양보를 하자.” 그래가지구서는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를 해주구설라므
니 이제 그 회관자리두 이거 그 사람네 땅을 회사를 했구. 그 당시에 돈으로, 액수로 따지
면은 쌀이 한 사십 가마는 되여. 그 사십 가마 값을 그 사람네들이 회사를 한 겨. (조사자:
그러구 묘소를 자기까?) 이. 묘소를 자기네가 인저 저기하고 공께 군민이 인제 그만큼 세금
을 저기, 거기다가 질을 내가지구 말여, 끈 거 있으면 직접 가서 전부 내주었다 이거여. 그
래가지구 제실을 짓고, 와서 그래가지구선 그 묘소도 점잖게 해놔지. 장영실은 실조⁹³⁾이기
때문에 설당⁹⁴⁾을 하고, 그래가지구 시방 그 사람들이 모시는겨. (조사자: 그러면 산제라는
것도?) 산제는 인저 안 지내지. (조사자: 워따가 해달라구 해서 사십 가마를 내놔는데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명장 고기에서, 그 저기가 워했기 때문에 동네가 편안했었는데 그 사람
네들이 우리네보다 더 정성스러워서 수백 년이나 제사를 지냈는데. 가만 있자. 근디 시방은
또 그때랑은 시대가 달라져서 산제당이 많이 읍어졌어. 그랬는데 그, 그 사람네들이 경상도
로다가 가서, 안동으로, 그쪽으로 가서 다 퍼져 살지. 여긴 하나도 읍어. 지금 그래서 그 장
장군의 묘소에, 그 거기에 아들이 여기서 살았는데 아산을 봉해준다. 아산땅을 우리 한국왕
더러 줘라, 그래가지구선 아산땅을 그 장장군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관리하고 살았다 이거
여. 공께 거기 뭐야. 저 넥석동, 저기 뭐 인접으로다 이 다 도지를 나눠서 살은 거다 이거
여. 장영실이, 장영실이, 우리가 집에서 몰르고, 그 사람네들 애기로는 그때만 해도 서족의
자식이라고 해서 등용을 안 시킬라고 했는데 머리가 비상했다 이거여.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에, 에 세종대왕이 시절에 세종대왕 시절에 등용을 시킬라구했는데, 그 저기들이 못시키게
했는데, 머리가 원래 좋다 이거여.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악기같은 거 맨들고, 물시계 만
들고, 별거 다 발명했든 게, 헨 저기해서 공께 세종대왕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서 등용을
시켰어. (조사자: 예.) 그랬는데 그때 사육신이 그때 막 죽일 적이 아녀? 여러 학자들을 질
러가지구 저기 했을 적에,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인제 다 생으로 갖다 죽인 거 아녀? 그 당
시에 갖다가 세종대왕이 직접적으로다 제기했으니께 이렇게 행적 읍이 죽여 없애진 겨. 사
실 그래서 묘소가 없고, 아무런 뭐여? 교과서에도 고것까지만 나왔지, 이리 무슨 유물이 읍
구, 기록이 읍다 이겨. 그래가지구선 이저 나라에서, 이 저기를 해줘야 될텐데, 그 저기가
읍구, 그 유물이 읍구, 그래가지구선 그 후손들이 무지하게 애썼어. 그걸 나라에서 그렇기
문화재로다가 해서 지사⁹⁵⁾ 지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드라구. (조사자: 그러면 저기에는
장영실묘에는 시신이 없구 몸만 있는 거예요?) 없지. 그렇지. 그렇게 설당만 한 겨. 거기 손
⁹⁶⁾도 완전히 끊어지구. 그 손은 완전히 끊어지구는 나서 저게 칠대손이라고 하는데, 그 손
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가지구선 윗분⁹⁷⁾이라고서는 그냥 살전이더라구, 아주. 그랬는데 그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이 장씨네들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설당을 하자 해가지구선
설당을 한 겨. 거 설당하기 전에 그런 지가 한 십년 조금 넘었지. (조사자: 예.) 그라고 장장

군 묘소 찾아서 저기한 것은 이십 년, 이십일 년 됐지.

능구리가 뭐 아니구, 탄 게 아니구, 시방은 말여. 이 뱀 잡아 먹는 것이 말여. 평등화돼 지구 서로가 인저 너나 할 것 읍이 다 잡아먹구 있지마는, 옛날에 폐병 들었다, 뭐 중요한 병이 있으며는 저울기⁹⁸⁾ 같은 때 보면은, 누가 저기 하는 사람 있잖여? 뱀을 워서⁹⁹⁾ 잡어? 궁께 능구리 바위에다가 상술가지 같은 거 연기 썩워서 불을 때면은, 잉? 한 쪽 구탱이로다가 배암이 뭐이 밀려 나와가지구서는 발로 탁 이렇기 메가는 거지 그 저기지, 탄 건 읍어.

이토정 선생이 태지는, 그 말하자면 아산군 고을 원 아니었어? 토정 선생이 사실은 머리로 말하면, 머리 비상하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여. 우리나라의 시방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한 지위될 만한, 그런 위인인데 응? 이 아산군 고을에다가 위치를, 뭐 인저 봉해서 와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끝이기 비상한데, 이렇게 터지게 생겼단 말이며, 이 바다가. 바다가 터지게 생겨가지구 저기하는디, 토정리 토정 선생이 보니까 널 저녁때 뗏 시 정도면은 거, 여, 다, 그, 저 바다 가운데 큰 시장이 하나 았았었거든, 옛날에. 저 영바위가 옛날에 부자집 뒤란의 바위였다구 그러는디, 시방은 엄청 크게 따났지만, 궁께 토정 선생이 벌써 가시면 시민더러 “비키라구 말혀라.” 구. “시민이 여기서 살다가는 전세가¹⁰⁰⁾ 죽을 색이니께 빨리 비키라.”구 말여. 그런데 등짐장사가 “아이 참, 어지간이 급하다.”구 말여.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당신이나 먼저 비키면 되지, 뭘 저기 하나?”구. 그러는데 그 등짐장사가 그게, 사람 이란게, 말하자면, 그게 옛말로 말하자면, 그게 뭐라고 그러? 신인인가 뭐여? (조사자: 무당 같은 거예요?) 근데 비켰다 이거여. 저 소리가 바위 저 쪽제로다가 비켜서 거기 가서 앉아서 등짐장수가, 거기다가 거 웅기장사가, 거개를 받쳐놓구 작대기를 받쳐놓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토정 선생이 응 “이, 쪼끔 더 올라오라.”고 말여. 그렇게 토정 선생이 거기까지 터지려니 생각했는데, 고령기 고 가참게 오려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등짐장사, 그 웅기장사는 이미 자기는 뗏시에 터진다는 것까지 알았다 이거여. 궁께 토정 선생보다 더했다 이거여. 그래서 딱 뗏시라든가, 뗏시 되오니께 작대기 받쳐온 그 밀이까지 딱 잘라서 터지더라. (조사자: 예. 그러면 등짐장수가 더 똑똑했던 게네요?)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뭐 옛날로 말하면 뭐 귀신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

그 토정 선생의 얘기는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 영인에 가면 구룡산이 있어. (조사자: 구룡산요?) 잉. (조사자: 영인면이에요?) 저 백석포 뒷산. 그 사람이 가지구서는, 토정 선생이, 자기가 그 그 궁께 말하자면 뭐여? 뭘, 옛날에 뭐여? 강감찬 장군이 뭐 도격썩서¹⁰¹⁾ 저기하면 뭘이가 없어지고 저기한다고, 그 식으로다가 제자들더러 응, 신하들더러 “자, 가서 저 바위덜 떠들어 보라.”고 그러면, 바위 들으면, 금이 이거만헌 게, 이게 그냥 하나 가득 들었다 이거여. 잉 그래서 또 “저 가서 말여, 저 돌막을 떠들어 보라.”고 그러면 저 가서 봐도 금이 딱 차 있어. 그렇게 그 신하가 욕심이 생겼어. 그렇게 ‘토정 선생을 죽이면은 저건 내 거지.’ 하고서는. 그게 지네 생즙을 먹었는데, (조사자: 지네 생즙요?) 어. 밤, 생물을 먹어야 사는데, 그걸을 저기해서는, 미류나무를 하얗게 해가지구 똑같이 해가지구, 깎아서 줬다 이거야. 그 시기가 넘어가지구 죽었다 이거여. (조사자: 예? 뭐 어떻게 해서 죽어요?) 밤을 못 먹어 가지구, 그래가지구는 저기해가지구서는, 그 저기하구

서, 죽고 나서, 아 이놈덜이 가서 바우 있는 디를 떠들어 보니까 있긴 뭐가 있어? 도술, 도선, 도술로다가 그렇기 한 것을 말여. 그렇게 자기가 기술만 믿고 하다가, 자기가 생 죽여놔다 이거여.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얘기해 야 되는데, 거, 저기, 내, 뭐, 저, 저기, 봤는데, 요 너머쪽에 사는 노인네가 있었어. 근디 그분이 지금 생존해 있으면, 직접 봤을 께. (조사자: 글세 말예요.) 차종운 아버지, 양아버지. 그렇게 밀두리에서 술을 먹고 오다가, 그러니까 나가 어려서여. 한 사십 년 전이지. 오다가 술을 잔뜩 먹어가지구서는, 인제, 이 뭐, 그, 산제당에 가서 잤다 이거여. (조사자: 산제당에 가서요?) 이, 산제당에. 당시 산제당이 있었으께. 자는데 뭐 이 섯섯섯 하더니 말여, 깨는데 “빨리 내려가라.”구 말여, 응? “왜 여기 있냐?”구. 그래서 자기 재종네가 고 밑에살았어, 바로. 그래 거기서 깨가지구 얼찌리1) 깨가지구서는 와가지구서는 마루에 걸터앉아서 보니까, 범이 불을 켜고 내려다 보더라 이거여. 응. 그래서 그이가 생전시에는 새가 떨어져도 꼭 쌀 한 되 서 훑하구 소지 올려 달라고 돈하고 해서 꼭 자기 손주를 올려 보냈어. (조사자:산제당으로요?) 잉. 산제 위하는 데. 그라고 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손을 못뉘서 그렇게 신히 적에, ‘자손을 두게 해달라.’고 두게 해달라고 저기 해가지구서는 당을, 중 구실하고,2) 인제 뭐여? 부정이 있으면 안된다 이거여. 잉? 만약 여자들 말여, 저기 멘스를 한다던지 하면 저기 못하구 그랬는디, 요 사람이 자발머리 읍이3) 출구하니께 정월보름날 언제구 지사를 지냈는데 사흘동안 기도를 드렸거든. 그러면 찬물에 가서 사흘 동안을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떠가지구 조라시¹⁰²⁾를 해놓구, 떡밭을 담그고해가지구, 해가지구 올라간다 이거여.(조사자:예.) 그랬는디, 출다구 물을 데가지구서는¹⁰³⁾ 방에서 자택이다가,¹⁰⁴⁾ 그냥 퍼다 거기서 목욕을 한다고. 그 방 자택이가 냅다 그냥 뽕개져가지구 물이 한강되구, 방에서. 태기가 있어가지구 병신 자식을 뒀어. 그라고 죽었어. 그, 그런 얘기는 내가 목전에서¹⁰⁵⁾ 본 얘기여.

사. 인주면 마을 7 (밀두리)

1) 조사 일정

1992. 6. 26., 김동욱 기록

11시 45분 숙소로 정한 밀두리 1구의 일미식당에 도착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사전조사자료집 윤독회 및 임무 분담을 하였다. 그 뒤 길 건너편에 있는 밀두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김무신 씨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날 오후에 노인회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후 4시경 철수하였다.

근처에 있는 면사무소에 들러 밀두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능구리바위가 있다는 냉정리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바위에 얽힌 전설을 듣고자 하였으나, 바위가 있다는 곳에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아산군지에 나와 있는 능구리바위 전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바위 근처에서 뱀이 많이 나온다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판단되어 오후 5시30분경 숙소로 돌아왔다.

1992.6.27., 박미애 기록.

조사 이틀째인 27일은 오전 10시2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밀두리 1구 노인회관으로 갔다. 노인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막상 찾아가 보니 해암리에 일이 있어서 모두 2리로 가고 아무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중식 후 오후 2시쯤 다시 찾아가 보니 노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 중에 이야기 잘 하신다는 신창균 씨와 김무신 씨를 숙소로 안내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신창균 씨는 <어린 소녀의 지혜>, <서당 꼬마의 슬기>, <이웃집 여인의 명판결>, <서고청의 도술>, <행운을 잡은 항아장사>, 외에 <말막음 이야기> 몇 편을 해 주었고, 또 <토정 선생의 예언>, <토정보다 뛰어난 서고청>, <개고기를 올린 제사상>을 구연하였다. 김무신 씨는 <시아버지 버릇 고친 며느리> 이야기를 해 주었다. 구연자 두 분이 기분 좋게 이야기해 주어서 조사자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조사할 수 있었으며, 오후 4시 35분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

2) 마을개관

【인주면 마을 7】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밀두리1구

1992. 6. 26., 김연아 조사

밀두리 1구는 인주면의 면 소재지로 자연부락 이름으로는 용이 많았다는 데서 지어진 밀머리라는 이름에서 유래했고, 주민은 총 266명으로, 69세대가 살고 있다. 남녀별 현황으로는 남자 138명, 여자 128명으로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아산군의 관광지 개발과 인근의 낚시터로 인해 도로가 잘 닦여진 편이고 상점이 많았다.

인주면의 공공기관은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이 있었고, 교육시설은 없어 부근의 신성국민학교, 인주중학교, 고등학교는 온양이나 천안으로 통학한다.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공세리에 성당이 하나있고, 밀두리 1구에도 교회가 하나 있다. 전래하는 민속행사는 없다.

3) 구연자

【밀두리 구연자 1】

인주면 밀두리, 김무신(金戊臣), 남, 75

1992. 6. 26., 이상은 조사

4대째 농사를 지으며 이곳 밀두리에서 살았다는 김무신 씨는 이곳 노인회장으로 비교적 깨끗한 인상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구연 도중 자주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이야기에 열중한다.

우리들의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으나 청중들은 시큰둥한 태도였다. <공세리·두

리·냉정리·대음리의 지명 유래>, <장장군>, <영바위>, <살인을 한 박어사> 등을 들려 주었고 다음 날에는 신창균 씨와 함께 조사자들이 묵고있는 숙소로 와서 <시아버지 버릇 고친 며느리>, <황정승과 맹정승>을 들려 주었다.

【밀두리 구연자 2】

인주면 관암리, 신창균(申昌均), 남, 80

1992. 6. 27., 이상은 조사

원래 고향은 공주였다는 신창균 씨는 40년째 이곳에 살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관암리 서당을 했었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서 걸음걸이는 힘겹고 눈빛도 희미했지만 컷볼이 매우 넓고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아주 크고 힘이 있다. 이야기 도중에 대화를 아이 목소리, 어른 목소리로 실감나게 흉내내며 이야기한다.

자신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계속 반복했지만 오히려 생각이 깊은 듯이 보였고 구연 시 청중들에게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내면서 젊은이들은 많은 의견을 내야 한다(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서 구연 현장에 생기가 돌도록 하였다.

<어린 소녀의 지혜>, <서당 꼬마의 슬기>, <이웃집 여인의 명판결>, <서고청의 도술>, <행운을 잡은 항아장사>, <말막음 이야기> 몇 편과 <토정선생의 예언>, <토정보다 뛰어난 서고청>, <개고기 올린 제사상> 등 짧고도 흥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4) 설화자료

【밀두리 설화 1】

인주면 밀두리 노인회관, 1992.6.26., 김동욱, 박미애, 이상은, 김연아 조사

김무신 (남, 75)

공세리·밀두리·냉정리·대음리 지명 유래, 장장군, 영바위, 시아버지 버릇 고친 며느리, 황정승과 맹정승, 살인을 한 박어사

밀두1. 앞, 뒤

바로 고기가 정운이여, 정운.(조사자: 능구리 바위 있는 데요?) 거기도 냉정리구 으, 그 위에도 냉정리구. 냉정리는 어째서 냉정리라고 부르느냐? 그럼 전부 물어. 냉정리, 어, 찰 냉(冷)자하고 물정(井)자, 어, 아주 물로 찬, 아주 물, 물도 차구해서 냉정리, 다 있었어. 이. (조사자: 아 예, 말씀하세요, 계속.) 이잉, 아녀. 그냥. (조사자: 능구리바위 얘기 좀 해 주세요. 냉정리에 능구리바위 있잖아요?) 능구리바위 있지. 능구리바위는 그르께, 이 하절에는 어 뱀들이 나가 있다가 겨울이 잉, 능구리바위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요, 뱀덜이. 이 동절이 살라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께 이, 그게 약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다 인저 불을 때거든, 이르키. 불을 때면은 뜨뜻하지, 바위가 더워지거든. 능구리가 이제 나와. (조사자: 능구리가요?) 그렇지. (조사자: 근데 그 것뿐이예요?) 그럼 또 뭐이가 있어? (조사자: 아니, 능구리 바위에 얽힌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 없어. (조사자: 새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잉?

(조사자: 새터요?) 뭐, 새터? 이. (조사자: 지금, 쪼끔 전에 새터하고 밀머리 어디 하셨잖아요?) 그러기, 새터라는 디, 공소지라는 디, 저기 지소 소재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전의 공소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저 공세리라고 하는 것에 가서 즉, 말하자면 세금 받는데, 조공을 받는데래. 거기가 공세리라는 데가.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공세리여. 그래서 공세리. 전이는 공서, 공서, 공소지였었고. 이 저 행정기관은 공세리여, 공세리로 되있는 거. 그래가지구 저 그때는 면소재지이고, 고 밑으로 내려와서 신성리는 새테구, 새테. (조사자: 신성리를 옛날에는 새터라고 부른 거예요?) 잉. 새테구. 또 여기루 올라와서 이제 밀두리가 밀머리구. 그, 그런데 인저 밀머리는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무슨, 무슨,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몰라두 거기 저 용천리. 용이 항상 거기 있었다고 해서 용의 머리허구 어, 어, 모습 허가지구서는 아까처럼 뽁 뽁 밀(密)자, 머리 두(頭)자해서 밀머리라고 머리. 머리가 인저 머리 두자로 되가지구 밀두리라고 되있는 거. 그래서 그 신성리 밑으로 저 인제 새끼쳐 나가는데, 그 그 밑으로는, 저 해변 쪽으로는 전부 경기도 땅, 수원 땅이어서 밥해 가지고 충청도 땅이서 먹었었대. 그래가지구 그때는 이제 양반, 상놈, 중류, 저 상, 양반 쪽 이제 상인이다 중인이다 하인이다 할 적이 인제 수원 땅에서는 충청도는 하인이 많이 되거든. 그 그러니 중인이여. 경기, 이 수원 땅이는 그러니께 말하자면 양반이구, 그래서 그 하대를 받았대. 그래가지구 이제 저 중류로 내려가가지고는 이 문방리라는 데는 몰러. 거기는 워티게 붙여졌는지, 그건 얘기 못 들었어. 그래 이제는 한 뿌리가 있거든, 한 뿌리. 이 한 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 둘 한 뿌리라고. 인저 저를 어른들이 말씀하길 그래, 인저 소 둘 한 뿌리라고. 소 둘 한 뿌리는 어찌 소 둘 한 뿌리냐? 고게 인제 소가 인저 소가, 소 형국이었던대, 형국. 근데 소는 둘인데 뿔이 하나다 이거야. 소 둘 한 뿔. 그래 인제 소 둘이라고는 그 저 당진 땅에 들이 있어, 들이. 이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소 둘 한 뿌리다. 한 뿔이라는 것은 지금도 한 뿔이라고 불러. 거기 그 대암리지, 거기가.

(조사자: 할아버지, 장장군 얘긴 뭐예요?)아니, 그래가지구 인제 얘기할께. 그렇게 되 있구, 장장군은 이제 고 다음으로 이리 생긴 거거든. 장장군 묘는 이 저 우리 이리 장장군 묘의 자식들이 맨들고 그럴 적에 구경들 했지마는, 거긴 아까 얘기대루 그 자리가 바로 전이는 뭐 서낭제로 지낸다, 뭐루 지낸다. 서낭이랑 똑같은 게 당제라구. 당집을 거기다 이렇게 지었었어, 당집을. 응, 고 자리야, 바로 아주. 당집을 인제 고기루 했는데 그 그 장씨들이 그러니까 장군이, 이 자기들의 시조니께 장장군이, 자기 이제 장씨들의 이제 시조거든. 그러니께 이제 그 찾을러구 족보를 가지고 다니며 죄다 죄다 거 찾았는데, 그래가지구 가서 거기 가서 보니께는 막 긴 것두 같거든, 거기가. 이제 장장군 묘의 같어. 그러니까 거기 그 동네를 찾아 내려가서 뭐 물어가지고는, 예전이는 모 거기가 뭔가 있었다 어쩐다 알아가지고는 인제 해가지고는 그 집을 헐어내 가지고서는 그 장장군 묘를 썼어, 크다랗게 그냥 썼어, 능처럼. 그래서 해마다 어 제사 지내구 그래, 그 장서방들이. 이 근래로 생겼어, 그건. (조사자: 무슨 장씨, 본관이 어디 장씨입니까?) 근디 그러니께 저 장씨가 지금 저 저 무슨 장씨가 있어? 장제승¹⁰⁶이 장자(蔣)에 그러니께 본은 아산 장씨, 아산 장씨. 예, 영인면 영인면이 그러니까 아산이거든요. 아산 거기가 아산읍내라고 그랬시유. (조사자: 그렇지요.) 아산읍내라고. 그래가지구 말하자면 동사리 아산읍내 거기 거기였었죠. 그래가지구 지금도 인저 제사 지내구 그래요. 그러구 온양 저쪽으로는 온양읍내, 읍내가 있거든요. 동호명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 있어요. (조사자: 여기 저 이쪽 이쪽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르신네.) 네? 여

기 산 지 얼마 안 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기는 삼대, 사대 살았, 사대째 살아유. 사대. 오래 안 됐죠. 이제 내대에 와서 사대째니까. (조사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충 뭐 다 아시겠네요?) 아, 몰라유.

차나물¹⁰⁷이 있어유, 찬아물. 그러니까 찬 물이 난다고 해서 차나물, 그래 행정구역으로는 냉 냉정리라구. (조사자: 우물정(井)자해서 냉정리, 어 거기 뭐 능구렁이 바위가 있다면서요?) 예, 여가 다 썼시유, 다. 거기서 사는 양반이 다했슈. (조사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얽힌 얘기.) 그러니까 얘기가 뭐 내가 별안간 어디 뭐 알두 뵈하지만¹⁰⁸ 별안간 얘기를 하라니 무, 무슨 얘긴지 알두 못하겠시유. (조사자: 아까 뭐 새터라고 그러셨나요?) 새태. 지 지끔 그게 행정구역으로 신성리지. (조사자: 저기 무슨 용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까? 용두산? 당지산?) 용두산, 용두산. 아니 저 신성리에 용두산이 어딴어? 용두산은 내가 못들었는데. (조사자: 거기 뭐 장수에 얽힌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장수고개. (조사자: 예, 장수고개.) 장수고개가 있지유. 뭐 몰라유. 장수고개라는 거 얘기만 듣고 뭐 그랬지. 그런 건 몰라유. (조사자: 그리구 뭐 해암리, 해암리 거기 또 뭐 계바위가 있다가?) 거기 또 계바위가 있다가 아까 거 해암리 사시는 분이……. 안 썼어? (조사자: 계바위가 있다가만 하시구 거기에 얽힌 얘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향진이라구 있죠, 당진에. 향진 저기저 뭐요? 경기도 땅하고 당진 땅하구 거기 저 영바위라고 있어, 영바위. (조사자: 글자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모르겠시유. 그 바위가 전이는 이런 육지였었다고요. 그러니 저 전이 뭐여? 그때 시절에 그러니까 토정선생이 있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저 그랬는데 그 저 이게 태가 터질 때, 태가 터질 적에 토정선생도 내기를 하고 그때 저 소금장수가 여기 오면은 일구 공그리투라고 있죠. 거기에 와서는 잣대, 작대를 이렇게 받쳐놓고서는 있었대요. 그래 인제 토정 선생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게 갯덩이 거기까지 닿게 됐걸랑요. 그래 그러니까 “아, 이거 떠나가게 된다.”고 그랬는데, “에이, 토정 선생이 되려 엉뚱한 소리한다.”고. (조사자: 소금장수가요?) 응. 고기까지밖엔 안 오더라. 작대기 받친 대까정. 그래.

어 그리고 영바위라는 것이 지금도 잊히질 않으유. 그 바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아 한두 뺨 이렇기, 이렇기 두 뺨, 노랗게 노랗게 보이요. 묻치지 않았어유. 거기가 그때는 여곽집이라 그랬지유. 예전에는 여곽집인데, 그저 저 서울 올라당길 적에, 말하자면 서울을 올라당길 적에 서울 저 여곽집에서 안마당에다가 세숫대야를 하나 올려놓고서 세수할 만큼만 맨들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그냥 서 있는데, 그걸 영바위라 그러는데 그 물도 안묻히고 그냥, 그냥 그렇게 있대요. 토정 선생이 그렇게 해서 한 번 지나갔대는 얘기유, 그 얘기유. (조사자: 신령스럽다고 영바위네요.) 내 글씨 영바위라 그러는데, 어 그쪽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디 이쪽에서 보면은 날이 이 한창 밝다가도 비가 올라그라면 기가 바위가 논다 그러거든. 논다 그래가지구 여기서 그쪽을 쳐다보면은 산에 가서 지하집¹⁰⁹도 짓고 또 뭐 사람이 뭐 이구서 가는 것두 뵈고, 이렇게 뵈유. 그리고 또 그 바위가 날이 곳을라구하든 그러니까 이제 암바위 수바위가 있는데, 암놈이 놀다 숫놈이 논다 그러거든요. 암놈이 놀 적이는 놀면 비가오고, 숫놈이 놀면 비가 안온다 그런, 그런 전설을 들었시유. (조사자: 용바위네요.) 령바위. 령, 령. (조사자: 암룡, 숫룡 뭐 그런다면서요?) 어, 령바위, 령. 어 그래 령바위라 그러는데 룡바위랑 마찬가지로. (조사자: 그러니까 헛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저 그저 여기서 쳐다보면 뵈요, 그게. 안개 낀 것처럼 해가지고 지하, 지하집도 짓고 이렇다 이렇다 자꾸 변덕이 되고. 그건 나도 봤시유. (조사자: 여기서 보인다고요?) 어, 그렇게 되는 거 봤어유. 저거 영든다 영든다 사무들¹¹⁰ 그래요. 어 거 그래가지구 인제 거기 가서 이렇게

가서 묻히, 이 이끼 낀 돌이랑 똑같아요.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밀이는 새까맣고 여기는 노르스름하게 되었고 그래요. 새가 앉아가지고, 거기도 가봤시유. (조사자: 그럼 지금은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고, 그렇게 멀두 안 해유. 걸매 걸매, 아 거 잇따라 배 안 들어오면은 저 아래 갔다가 천씨농장이라고, 이렇게 막아버렸시유. 그래서 배가 안 들어와요. 물이 시퍼렇게 보이는 디가, 다 아주 시퍼래요. 거 어 거기는 뭐 고, 고기잡는 배 많이 갔었시유.

어 그랬는지 모르지. 인제 박문수 박어사가 평민이러¹¹¹⁾ 그냥 걸어 땡기거던. 조선 팔도를 걸어 땡기제. 그런데 한 집을 이제 떡하니 가는데, 박문수 박문수 박어사가 인제 지나가는데 질을 이롭게 이거를 맨들거든. 질을 맨드는 게 아니라 질을 닦어, 멀쩡이서 보니겐. 그래 인제 지나가면서 박문수, 박어사가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동민을 모아가지고서 질을 맨드느냐?”고 그러니께는 워편 워편 사람이 하나 툭 나서더니 “박어산지 좃인지 온다.”구 그러거던. 그래 인제 박문수, 박어사가 온다니겐 질을 다시 맵길고 그러는겨. 아 이지 박어사가 들어, 들어가면서 가만 생각하니 약오르거던. 그래 이제 고깝게 생각을 하고선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인제 박문수, 박어산테 너 큰일났다.” 이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났거든. 그러니까 인제 이 그래 박어사가 그 동네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다른 텐갈 것 없구 쉬어. 그 동네서 자. 그 놈을 불러다가 혼꾸명을 내줄라고. 근디 이 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암만해두 큰일났어. 그래 인제 생으로 지사를 지내드래, 지냈대요. 자기 아버지, 그날 저녁이 이 지사라고 지사를 지냈대. 그래 인제 지사를 지내는데, 이 저 그 박어사를 자기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그래 이 저 지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갖다, 박어사보고 갖다 잡시라고 드리니께 “이밤이 왜 이르키 밤참을 해오느냐?”고 그러니께 “오늘 저녁에 애비 지산지 좃인지 지내는데 이키¹¹²⁾ 갖다 베켜드린다구.”¹¹³⁾구 그러니께 ‘아, 저 놈 말투가 그렇구나.’하고 그냥 인제 지나갔대요. 그러쿠 나서 이 하룻날 가서 보니께는 그 이런 정치 같은 것두 잘 해 나가구 그래. “인제 자자.”구 그루구 “그럭하라.”구. 집 집두 큼직하고 아래윗채 상일첸디, “여기루 인제 들어가시라.”구 그라구 그래 인제 들어가서 혼자 앉았는데 저녁을 해와서, 내와서 먹구 그라구 방이서 보니겐 아 어떤, 지끔 말로는 개집처럼, 또 지봉을 요렇게 해가지고선 해 냈거든요. 근디 그 어떤 부인이 와서 인제 저 그러니께,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구만서두 상시칼¹¹⁴⁾이라구 하는 거 뭐 있쥬? (조사자: 네 네.) 뭐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 그걸 이렇게 갖다주면서 문 열고 드리다, 드리 놓거든요. 그러니께 이제 그걸 먹는지 어찌는지 보두 못하구 얼마 뒤 또 있다가 와서 내가요. 그러니 어찌 이상하단 말여. 의사¹¹⁵⁾가 보기엔. 아 그거 뭐인가 좀 분다구. 근데 그때도 기냥 돌아다니면서두 지 지¹¹⁶⁾ 담뱃대, 소대로 가지고 다녔대 항상. 이렇게 너가지고 이 이렇게 보니겐 꼭 짐승같은, 짐승같은 저 뭐시가 싸양 하고 내달려 물러그라거든. 그러니까 담뱃대로 툭 때렸대요. 그래 인제 한 번 맞구 죽었어유. (조사자: 사람이구만요?) 예. 그랬는데 이저 그 집 주인이 나오더니 “참 그렇게 저 돌아가셨다.”구 그러구서는 초레됐는데,¹¹⁷⁾ 육대손이래요, 육대손. 그러니께 어 그 육대손이 되도록 어 살았으니께 상당히 참 오래 살은 그런……. (조사자;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짐승두 아니고 아무 것도 참 그렇게 생겼으겐 미접근한 것이 그래 가 때린 것이 죽었으니겐 그래서 살인했다는 그런, 그런 말을 들었슈. (웃음)

혼인두 참 꽤 까다롭구 그랬는데, 들어봤는데, 그거를 목 목간두 앓구 시수도 안 한다구래

서 내 들은 얘기를 허는디, 한 집이 지사 지내는 예법이랴든지 뭐든지 지나치게 따져서 그리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 그 집이. 그래니께 한 가정에서 저 말하자면 신부될 분이 “내가 그 덕으루 시집을 가겠다.”구 말여. “그 니가 시집을 가든 어특할려구 그러느냐?” “지가 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부모가 허락을 해가지구 노파를 보내서 인저 그렇기 이저 시집을 가게 됐는디, 하 이런 디서 시집을 떠하니 가서 살어유, 인저. 저 대례는 그렇기 봄이 지냈던디간이 그해 절¹¹⁸⁾이 돌아 왔는디 극한이어, 아주 몹시 추워유. 또 날이 그 거기 기고¹¹⁹⁾가 들거든유, 거기 시뻘에. 인제 기곤 날 아무 기척이 읊어유. 뭐 저 뭐 이렇기 장만 하구 뭐두 해야 될 텐디, 자기가 장만할 꺼는 부엌이서 장만하구 전부 그랬는디, 저 이웃집이 허는 말두 읊구 아무 기척이 읊어유. 그래서 인저 자기가 현대루 메¹²⁰⁾를 지어서 전부 해 놓구서 그 시부모한테 “아버님, 메 다 됐습니다. 목간 허시구서 메 올리시야지유.” 인자 그라구던. 그라니께 인제 이 시부모가 노인이것다 이저 그 극한이 나와서 목욕을 하구 모두 그렇기 할 수가 없어. 암만 생각을 해두 그러니 또 가서 시부 보구서 “아, 시간 다 됐는디 목욕하구서 메 올리시야지유.” 인자 그리구 그러니께는 “야, 못허갔다야. 이런 극한에 워터키 목욕을 한다니?” “죄이 친정 아버지는 암무리 추워두 꼭 찬물루 목욕하구 그럭하구선 메를 올리구 지찬대루¹²¹⁾ 합니다.” 그라거든. 그라니께는 자기보담두 더 하단 말여, 그 가정이는. 그래서는 그 모든 그 예법을 좀 줄여가지구서 그 가정을 이루구서 잘 살거던. 그러니께 사람이 의견이라는 것이 참 많거던.

그런디 그 분허구 조종서 정승들끼리두 다 도둑놈인데 황 황희, 황정승하구 맹정승허구는 도둑놈이 아녀. 놀랜스럽게 인제 도둑놈이라 구려는디 그래서 인저 이 맹정승은 요기 신창서, 아산군 신창면이구, 신창서 서울은 올라 댕기는데 소를 타구 댕겨, 소를. 그렇구 황희 황정승은 눈뜨면 다 도둑놈이니께 눈을 뜰 수가 없다구. 그런 저 뭐여? 대신들이 있기 뻔에 이조가 오백 년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구. 그 아무 뭐 당파싸움이구 뭐 들두 앓구 똑 조정에서 그냥 상감하구 국사 얘기나 하구 그렇기만 했지 통 무슬 하나 안 했꺼덩. 그래서 인저 맹정승이 지끔 말루다 인저 정년퇴직하듯 그렇기 인저 참 낙향을, 당신 본 고향으루 낙향을 했단 말여. 그랬는데 이 저 이 왜정 때까지두 그랬다니께유. 고을의 뭐 누가 와두 꼭 맹정승한테 가서 먼저 절하구 찾아뵙구, 이 왜정 때 군수가 와두 꼭 와서 찾아뵙구. 그러면 이 저 이 낭반을 집이서두 기냥 앉아서 뵈을 허는 것이 아니구 밭에 나가서 감토 쭈구¹²²⁾ 밭을 매구 그러구 텃토가 강토 위에 노랗게 안구 모두 그랬답니다. 그 인저 왜정 때두 군수 와서 찾아오든은 기냥 밭 매다가 손이 이 머시기 털구 접대를 허구, 즈심은 꼭 대접했다 구래. 즈심을 대접컨대 보리밥에 쌀 드문드문 쉼이구 그렇게서 꼭 멍쳐서 쉼. 뭐 잘 자실래야 잘 자실 수두 읊구. 그래서 인저 이으 군수 외상,¹²³⁾ 당신 외상. 외상으루 앉아서 식사를 허는디 군수니께 아모래캐두 참 그런 밥은 좀 좋지 않을 테지, 내 랜데두 좋지 않지. 쪼끔 뜨다 말거던. “그 왜 안 자시나? 자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사 안 할께세.” 그러구선 당신은 다 자시더랴, 밥 한 그릇을. 그러면서 그랬다구두 하구, 거 지금두 그 신창 거기 가면 거기 거기 그 멍씨들이 멍씨라구두 앓구, 멍가라구두 앓구, 지금까지 멍성이라 구랴. 멍가라구 앓는 거는 그러니까 멍씨 시조가 가래요, 가(軀). 외자 이름, 멍가.¹²⁴⁾ 그래서 멍가라구두 앓구 멍씨라구두 앓구, 멍승,¹²⁵⁾ 무신 말 혈라든 ‘우리 멍성은…….’ 이렇기 하구서 말허구. 그 사람네허구 접촉 좀 해보구 그래봤는디 꼭 ‘멍승은…….’ 그래놓구 자기네 말을 하.

【밀두리 설화2】

인주면 밀두리 일미식당, 1992. 6. 27., 김동욱, 박미애, 이상은, 김연아 조사

신창균(남, 80)

어린 소녀의 지혜, 서당 꼬마의 슬기, 이웃집 여인의 명판결, 서고청의 도술, 행운을 잡은
항아장사, 말막음 이야기, 토정선생의 예언, 토정보다 뛰어난 서고청, 개고기 올린 제사상

시골서 쌀은 옛날이는, 지금은 자루가 있고 푸대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이는 떡쟁이¹²⁶⁾라는
게 있어. 가마니 대신 떡쟁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맨들어설랑 떡쟁이에다 쌀을 담아, 담아가
지고 땀기는 거여. 그런 것을 맨들어 가지고 맨길어 가지고는 공주장으로 사러 왔거든. 그
래 일곱 말을 뵈가지고 사러갔는데, 그 옛날이는 조금 어둡고 강도도 좀 그짓말도 잘 하고,
너무 그래. 잘 사기해 먹는 일인지 강도가 그걸 다른 사람에 대주고선 일곱 말이 아니라 닷
말이라고 우기네. 닷 말이라고 우기니깐 그때만 해도 경찰이 있고 그래설랑 그냥 막 으 시
골 사람이 공주장애를, 그런 장애를 가니깐 다 그놈 강도편 역성을 들지, 쌀 사는 사람 편
을 안 들어준다 이거여. 그러면은 경찰이 와서 와설랑은 물으니깐 다 경찰이 한다는 것이
겨우“증인 있느냐?” “예, 증인 있다.”구. 그 강도가, 그 증인이 말야. “아, 저 놈이 쌀 닷 말
가지고 와서 일곱 말이라고 떼를 씁니다.” 그랬거든. 그것을 전부 다 그 많은 거 쌀 사는
말 편역을 안 들어줘.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그걸 일곱 말로 찾을까? 의견해 봐,
덜. 니덜 의견 듣기 위해서 하는 거이니깐, 으. 워트게 했으면 일곱 말이, 그걸 찾아줬어, 분
명히. 어뜨커면 찾아줄까? 몰르겠어? 잘 연구해봐. 못하겠어? 해봐. 될 수 있으면 하면은 좋
은 거여. 내게 의견이 나오는 거니깐. 그래서 거기 열 여섯 살 먹은 색시 하나가 지나가다
가 그걸 봤어. 보고서 쌀 말 되는 것도 못 보고 아무 것도 안 보고설랑 그걸 서서 싸우는
걸 구경했어. 그래서 순경보고 이랬어. “경찰을, 저를 권리를 빌려주면 저가 그걸 해결을 하
겠수다.” 그래 경찰이 그랬거든, “해보라.”구. 강도더러 물었어. “쌀 몇 말 줘느냐?” “닷 말
줬수다.” “그렇지, 닷 말 줘수니까 닷 말 줘다고 하겠지.” 입자보고 “쌀 몇 말 가져왔소?”
“일곱 말 가져왔으니깐 일곱 말 가져왔다.”구. “그래, 일곱 말 가져왔으니깐 일곱 말이라고
하겠지.”그래 쌀 두 말이 도망을 갔거든.(웃음) 그래서 그 떡쟁이하고 쌀 두 말을 했다. 거
기다 닷 말을, 닷 말을 부었지. 그 산내끼¹²⁷⁾가 있어 땀기는, 산내끼 배짜 틀어서 하니까 고
것이 아 풀어지는 거. 풀러도 고것이 그냥 꿰있어, 산내끼를, 그래서 쌀 닷 말에 섞어서 땀
겨보니까는 고것이 남지. “두 말을 더 부시오.” 두 말을 더 부니께 그 고, 고것 그 돼민¹²⁸⁾
산내끼 고것을. 자, 뭐 꼭 들어맞지. 뭐 남두 앓고, 모자르두 앓구. “일곱말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오. 이것이 남두 앓구 모자르지 앓잖우?” 그래서 경찰이라는 것은 스 스 조사 저 조
사를 잘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죽어나느니 촌놈만 죽어난다구.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 의견
얼마나 잘 냈니? 그 삭시, 어? 경솔히 듣지 말어.

그렇구, 또 옛날이는 중국서 한국이 인자¹²⁹⁾가 없나 그걸 불라구 문제를 내보냈어, 중국서.
“한국 숫말 우는 소리에 중국 암말이 새끼를 뵈으니 이걸 해석해 보라.”고 했어. 그러니 한
국에서 소리를 암만 크게 질렀어도 중국겨정 알아들릴 것도 없구, 알아들렀다 한들 암말 새
끼 뵈 필요가 뭐 있니? 이? 소리 듣고서. 그걸 해석을 해 보내라구 했으니 워트게 해석했으
면 좋겠니? 그거. 얘기해 보라. 어? 나는 동호일언.¹³⁰⁾ 그 옛날 뭐 호랭이 담배먹던 시절 그

런 것은 거 그것말 투쟁¹³¹)이고 이것은 그것말이거나 진짜거나 너희들이 알면은 위견¹³²)이 있을 꺼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여. 그러면 이것 적는 거냐? (청중: 아, 여기 다 들어간다고?) (녹음기를 가리키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옛날에 나랏님이 걱정을 했어. 조정에서 위견이 누가 있나? 그걸 해석할라고 하니까 조정이 그 만주백관¹³³)이 하나두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두 읍거든. 그래두 그때만 헤드라도 참 옛날에 원 박문수, 박어사가 있던지 위편 의사가 있던 모양이여. 그래설랑 “쫓아, 면면촌촌이 땡기면서 의견있는 이들 좀 구해오쇼.” 그랬그던. 그거 해결할라고. 그래 인제 그 의사가 나섰어. 날라리 보점을 싸 질머지고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애길 들으니 당채 의견이, 물어볼 사람이 없어, 해가 다 갔는다. 몇 장을 땡겨왔는디 위편 산골, 크더마난¹³⁴) 한 오십 보 되는 동네를 딱 가니까 동네 가운데 집이 있는디, 집이 있는디 그 집이 가설랑응 딱 오라 가니까는, 옛날에 서당이 학, 옛날 학교야, 그게. 옛날에는 서당이지 학교가 아냐. 서당이거든. 게 동자들도 없고 선상님도 없고 나이 열 살 먹은 쪼그마한 아해 하나가 있거든. “아가, 여가 서당이나?” “예, 서당입니다.” “그럼 선상님하고 동자배들은 다 어디 갔니?” “야, 오늘 날도 풍하일람¹³⁵)하고 그래설랑 애들이 선상님을 모시고서 가재천렵을 하러 갔슈.” 산골 가재가 있는 거여. 가재 아니? (조사자: 예.) 가재 잡아서 이저 지저서, 그 천렵을 갔어. “갔습니다.” “그래, 너는 안 갔니?” “나는 이 집 주인이기 때문에 서당을 지키느라고 못갔어요.” “그려? 오늘 해도 다가고 그러니깐 니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갔으면 어떻겠니?” “아, 그렇게 하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아 인제 저녁 때가 다 되니까는 애들이 우 물러오고 선상님도 오시거든. 와설랑 한다는 서리가 선상님이 아마, 선상님네 집이 등 나무¹³⁶) 어디던 모양이여. “나 오늘 집이 가설랑 불 일 있어서 집에 가서 자고서 내일 아침 올테니까 저녁일랑 장난 말고 공부덜 잘하고 장난덜 하지 말고덜 있다가 공부하러 일찍 오너라.” “예.” 인제 갔지. 그때 저녁을 개하고11) 개하고 선상님¹³⁷)하고 겸상을 해왔어. “밥은 먹지.” “여기는 산골이라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잡스슈.” “많이 먹겠다.” 저녁을 먹고 상을 내가고서

인제 애들이 다 온단 말여. 그 쪼그만한 애가, 재가 “오늘 저녁에 선상님도 없고 하니 오늘 장난덜 하자.” “장난을 했으면, 무슨 장난을 했으면 좋겠니?” “우리 의사 장난을 하자.” 의사가 있다가 개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상하거든. “의사 장난을 그래 아무거나 하자.”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난 연후에 애들이 다 모였는디 책상을 방 가운데 턱 놓고선, “아무가 의견이 있는 사람 의사를 해라. 음, 그럼 우린 소채¹³⁸)를 정한다.” 그랬거든. 그러, 그때나 지금이나 대가리 크고 글 욕심 있는 놈이 어른이니까 좀 큰 놈이 “그럼 내가 으사니까 너희는 소채를 정하여 오너라.” 책상에 올라 앉아서 그젠 이놈이 그 니내 개가 “사또님, 행차 알려왔습니까?” “응, 그러. 나는 잘 있으믄 느히들이 아무 연고나 없느냐?” “예, 소인이 보면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려? 그럼, 너 어째 왔어?” “오다가 이상한 걸 봤어유.” “뭘 봤니?” “까치 두 마리가 있는디 위편 게 암놈인지 위편 게 숫놈인지 그걸 몰르겠어유. 그것 좀 일러 주세요.” “아, 수치자옹¹³⁹)은4) 몰르거든 위편 게 암놈인지 위편 게 숫놈인지 날러 다니는 까치 그거 위떠게 야니?” (조사자에게) 너희들 알겠니? 수치자옹을 몰르지? (조사자: 모르죠.) 알어, 몰러? (조사자: 몰라요.) 알고서도 몰른다고 하잖어? 애가 그걸 더듬더듬하니 까 그 쪼끄만 애가 따구를 딱 때리며 “이 자식아, 임마,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 놈이 무슨 니가 의사여, 이놈아. 저리 물러라. 내가 의사다.” 아, 그거 몰러? 게루다가¹⁴⁰) 췌껴났어.¹⁴¹) 그래 애는 또 책상에 저렇게 앉았어. 앉이, 책상 키두 콩싸대기, “적어두 콩싸대기 사짜는

일도 아녀? 의사나 가의사나 사(使)짜는 똑같어. 그러니까 너희들 허시게 알아.”¹⁴²⁾17) 그러구선 애덜 여덱을 또 골랐으니까니 빨래 방망이 여덱을 다 빌려, 역줄, 역줄. 사짜는 다 도둑입니다. 그랬지? 아니 일도 아니라구. 역줄로 가더니 이렇기 양짜이 닛씩 갈러 서루서, 응, 사또가 와서 여기 와설랑은 도임을 했는디. 백성놈이 아랫목에 떡 자빠졌어. “밑에 놈 잡아오너라.” 의사또 그놈을, “예!” 하더니 여덱 놈이 가설랑은 잡아다가 의사또 앞에다 끌리고 앉았지. 커도 콩싸대기 적어두 콩싸대기, 크다구 의사구 즉다구 의사 아닌가. “이놈, 사또가 여기 와설랑은 도임을 했는디 완면허게¹⁴³⁾한 면은¹⁴⁴⁾ 백성이 두러졌어? 예이, 네 기둥 앞에 펼쳐놓고 볼기 쳐라.” 아, 여덱 놈이 빨래 방망이로 한 번씩 썰리는데 아, 볼기짜이 무너지는 거 같어. 아주 그냥 살이 무너지는 거 같거든. 그렇지만 그 그런 다인¹⁴⁵⁾들이여. 또 의사만 하더라도 다인 아녀? 그건 “예.” 감사하게 참 맞구설랑은 “네 이놈 옷목에다 꿇려라. 고얀 놈 같으니...” 또 옷목에 갖다 꿇렸지. 여기다 그러니까 그냥 잔뜩 꿇고 앉았네. “그러, 느이 다 아무 연고 없느냐?” 그러니까 그 맞은 놈, 수지자웅 모르느냐 놈, 그놈이 쫓아가서 ‘요느므 새끼, 내가 일러내는 거 무른가 몬 일러내몬 나한테 맞아 죽으리라.’ 하니까 앙심을 먹고 설랑은 그 놈이 가서, “사또님, 문안드립니다.” “어, 나는 잘 있었다만 너희들은 다 괜찮으냐?” “예, 소인이 보는¹⁴⁶⁾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니?” “전보사리¹⁴⁷⁾에 새 두 마리가 있는디 위편 게 암놈이고 위편 게 숫놈인지 그걸 모르겠어유.” 그러니까, “미련한 백성 같으니..... 앞에 날러 가는 건 암놈이구 뒤에 날러 가는 건 숫놈이다.” 날짐승들은 다 그렇다매? 앞에 날러 가는 건 암놈이라. 뒤에 쫓아가는 건 숫놈이구. 지구 아니구¹⁴⁸⁾ 말허는 소리가 근사하거든. 그러. 그러니까 이젠 장난을 파하구서, 다 가구서 인저 그 사또보구 “아까는 즈히가 그렇게 한 것이 펍 꽤썸하지유? 여기는 애들이 장난이 심해서 그러니까 용서해줘유.” “아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다.” 그러구서 지구 나설랑은 아침을 겸상해서 가져왔어. 가져오니까든 너희 그 사또하고 개하구 밥을 먹으며 한다는 소리가 “니가 나이는 열두 살이지만 국량이 백 살 먹은 이보담 더 많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가르는, 서울을 가몬 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쫓아서 가자.” 그 얘기는 앓구 가자구 들구 패수네.¹⁴⁹⁾ 그럼 애가 의심없이 “아버님 어머니보구 여쭙봐서 가라몬 가지유.” 인제 아침을 먹구설랑은 그 얘기하니까는 속으론 양반이 말하는 거니까 “조심해서 댕겨 오너라. 그래니까 그래. 날라리 붓짐을 싸 짊어지고 그때는 차가 읊으니까 걸어서 가. 지끔 한참 가는 중이여. 가다가 무슨 언덕에 금잔디가 주욱 깔렸거던. ”야, 우리 건기도 많이 걷고 다리도 아프니까 여기서 쉬어가자.“ ”아, 그렇게 하세유.“ 앉어서 쉬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 “조선서 숫말 우는 소리 대국 암말이 새끼가 뺏대니 그거 워트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니?” 아, 이놈이 그 소릴 듣더니 불끈 일어나서 “나는 서울 갈 것 읊유. 집으로 갈류.” 아, 깜짝 놀라서 “너 왜 갈라구라니?” 붙잡으니까 “여보슈, 서울 같이 사람 많은 데서 볼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다는디 그간 고만한 것을 해석지 못하고서 나한테 물으러 올 때 나한테 배우러 온 거 아뉴? 내 서울 가서 뭘 뺏나, 배울 거 뭐 있소. 난 집으로 갈라우.” 하 그거 벌써 애는 그 얘기 듣고 해석을 한 거 아뉴, 벌써. 말은 안 해. 한 거여. 그러니까 집으로 간다고 하니 손이 발이 되라고 빌었네. 빌어서 인제 갠신히 데리구 온다구 하니까 막 구경꾼이 백새 알치듯¹⁵⁰⁾26) 그렇게 모았던 모양이여. 아, 제그만 것이 야장야장 쫓아오거던. ‘아, 저런 뺏속에 무슨 국량이 들었으까, 인제 노릇을 하나?’ 모두들 그 조정에를 떡 가니까는 나랏님두 그랬어. 인제 데리구 왔다구 그러니까 어린애를 일러주니까 나랏님이 얼굴을 찌푸렸어. “오, 저런 어린애 뺏 속에 의견이 있겠니?” (조사자가 사진을 찍자) 어? 사진 찍지 말어. 내가

잘났으면 찍어두 되는데 못나서 찍지 말어. 나 여태 장가두 못간 놈이여. 그래서 나랏님이, 아 그래 해석을 해주야지. 나랏님이 물었지, 물었어. “너 국량이 그렇게 있니?” 묻는데, “국량은 없으나 물으려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라몬 조선서 숫말 우는 소리에 대국 암말이 새끼가 났으니 그거 워트게 해석하면 좋겠니?” “여기서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못하고 말 탄 놈 천 명만 주면은 지가 해석하고 오겠습니다. 저를 대장을 세워…….” 그래서 아주 나랏님이 친필을 썼어. 대장이라구 천하대장이라구. 만일 령을 여기면 목을 빈다니까 누구든지 죽기 싫은¹⁵¹⁾ 사람은 읍어,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안 죽을라니깐 시키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열두 살 먹은 어린애라도. 그래서 인저 “아무 날 아무 시 대국으로 가자.” 죽 데리구 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갔어. “너희 천 명이 개라는 개는 짓구 나오든 안 짓구 나오든 기저 멸망을 시키며 올라가라.” 그랬던. 천여 명이 짓구 나오는 걸 막 때려잡구 그냥 거시기하구 말 탄 놈이 쫓아가서 그렇게 하니깐은 뭐 개가 아주 멸망을 시키며 올라가. 서울루, 저 중국으루 가니까 차 중국 왕이 또 천자거든. “위서 이름두 성두 없는 군사 천여 명이 중국 개를 씨말리며 올라오니 이거 워트게 하면 좋겠느냐?”구. 그래니까 천자가 “빨리 잡아들여라.” 아,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 그까짓 것 천 명 잡기야……. 이력했다, 이력했다. 응. 그 인제 제 제 잡아서 천자 쫓아내다 꿇렸어. 그라구 나니까 천자가 하는 말이 “느이 대장이 누가 되냐?” “저 쪼끄만 양반, 저 양반이지유.” “응, 그러. 그래머는 느이 대국 개를 워편, 무슨 용건으로 씨말리며 올라오니?” “예, 저희 백성은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백성인디 조선이 삼 년이 송년이 들었습니다.” “어? 아 이놈아, 대국 개하구 조선 송년 들은 거하구 언어 도단이지 무슨 송년이 들었겠니?” “아니요, 대국 개 짓는 소리에 조선이 삼 년이 송년이 들어서 도탄 중에 빠졌수다야.” “에이, 미친놈! 대국 개가 암만 크게 짓기루 조선까정 알아 들렸으며 알아 들렀다구 삼 년 송년 들을 게 뭐 있니?” “그라몬 지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선서 숫말이 암만 크게 울기로 대국꺼정 알아 들렸으며 알아 들렀다 한들 암말이 새끼 뱄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라니까 천자가 껴안구 “아이구,내 아들이!” 그랬대. 응? 거 얼마나 의견이 좋으냐? 이게 경솔하게 우리가 하는 얘긴디, 듣고보면 참 의견 놀라운 애야. 그렇지? (조사자: 네.)

어떤 주막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주막집 권택이 쪼끔은 이뻐어. 이뻐는디 주막집 주인은 혼농 그저 일을 노다지 하구 옷도 깨깎이 안 입구, 또 그 아랫목에 노다지 와 앉았는 사람, 옷도 깨깎이 입구 말도 얇구 그렇게 앉았으니 모르는 사람은 그게 주인으루 알구 원 주인은 일꾼이나 심부름꾼이라. 그런 수두 있어. 나두 봤어. 그런 거 봤는디, 인제 하두 거기서 여러 해를 살다가 다른 디루 이사를 갔어. 멀찍이 그러니까 뭐 무근 궁리를 댔든지 이사를 갔어. 가서 인제 그 집이서두 영업을 하. 근디 그 자식이 또 거기까정 쫓쳐 왔어. 옷 깨깎이 입은 사람이. 그 본남¹⁵²⁾이두 거기 그냥 있구. 쫓아가서 또 거기서두 여전히 일하구 심부름하구 메칠을 하다가 그 인저 그 동네는 낮이 부치라구 모처럼 갔으니까는 전부다 그 건 일꾼이루 알구 옷 깨깎이 입은 사람을 본 사내로 안다 이거여. 누구든지 그래. 원주인이 얼마 있다가 “아휴, 나 고향에 줌 땡겨온다.”구, “집이 줌 갔다 와야 겠다.”구 갔어. 근디 인저 그 옷 깨깎이 입은 사람하구 그 여자하구, 쫓 여자하구 쫓어. “인저 이 사람 여기는 아무두 몰루구 그러니까, 머슴이루 여기 사람 다 아니게는 우리가 오걸랑 새경 줄 돈두 없구 그러니까는 보내자.”구 쫓어. 그르키 아, 그 주인이 왔지. 오니까는 불루더니 그 권, 깨깎이 입은 놈이 불루더니 “자네 미안해. 자네를 더 두구 싶을래야 새경 줄 돈두 읍구…….” 인저

원, 머슴, 권 보구 허는 소리여, 가짜가. 그렇게 인저 행랑채가 문패 붙인 거여.¹⁵³⁾ “그러니께는 나가주게.” 아, 주인 마누라도 구라네. 그러니께 그 짝에서부터는 보징게편 모냥이니께 그렇게 되꺼지마는¹⁵⁴⁾, 아 그라니께, 주인놈이 그 소릴 들으니께 천불이 날 꺼 아녀? 아, 눈이서 불이 확확 나지. 싸우구 막 별짓을 다해두 그 옷 깨깎이 입은 놈이 주인이루 알구 그건 머슴이루 다 알었다구. 그라걸래 그래 관가, 관청에 가서 고소를 고소를 하니까, 고소해두 그려, 응? “니 동네 사람이 증인이 있으니께, 어떤 게 주인이냐?” 그러니깐 “그 옷 깨깎이 입은 사람이 주인이루 보구, 저 사람이 머슴으러 봤수다.” 그러니께 아, 경찰서에서두 그 권놈을 귀쌈을 때리며 “아, 이놈, 아무리 주인이 마음 좋기루 이놈, 머슴놈이 주인 마누라 뺏을라구, 원주인이라구 이놈, 떼그랭이를 써? 이런 고안 놈 겘으니. 나가라.”구 막 내모네. 그래서 거기두 워떠겐 여자가, 참 살림하는 여자 하나가 그 경찰서하구 그 집하구 서루 이 옷이서 이렇게 보구서 그것 참 안됐거든. 그래 쫓아 들어갔어. 경찰서루 그 여자가. “지가 권리를 빌려주면 핵백¹⁵⁵⁾을 가리겠수다.” “그려, 해봐.” 그래 경찰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설랑은 똑 같은 케 두 개에 사람 하나씩 들어갈 만한 케 두 개를 사 오라구 그래. 케짜, 케짜를 사가지구 오라구 그램으니까. 그 두 사람을 이르키 앓혀 놓구서 그 여자를 거기 들어가라구 그랬네. 그라구 두 놈덜을 못을 탁 박어, 나오지 못하게 박구, 저 하나를 저쪽 경찰서 그러니께 원 워편 휘면데¹⁵⁶⁾ 가설랑은 형사를 집어 놓구설랑은 못을 딱딱 박어놔어. 박어놓구서 인저 “이 여자는 여기 들어 있으니까는 너희들 증심 요기하구 한 시 되질랑 오너라.” 그래 증, 먹든 안 먹든 경찰서서 시키니깐 나갔지. 나갔는데, 여자들은 케는 저쪽에 갔다 감춰놓구 형사들은 케만 거기 갔다 났단 말야, 이 그 났던 마당에다. 인제 개덜이 왔지. 그려, 옷 깨깎이 입은 사람더러 “이걸 짚어지구 아무디 지서 있는 데까징 가설랑은 도장을 맡아가지구 오너라, 지구 가서.” “예.” 그 시키니께 시키거라. 이놈이 이르케 지구 가다가 아무두 읊으니께 “여보게, 똥네, 똥어. 벌써 경찰서에서두 미친 놈이라구 안 하나? 말만 잘 하. 그라문 자네하구 나하구 살게 되는 거여.” 형사는 그 안에서 적었지. 응, 그렇게 할 꺼지? 이체¹⁵⁷⁾가 적을 꺼냐, 안 적을 꺼냐, 응? (조사자: 적어야죠.) 적어야지? 응. 인저 갔다 왔지. 인저 그 사람, 더 옷 흥하게 입은 사람더러 “지구 거기까장 갔다 오너라.” 이놈은 지면 말이지, 누가 있으나 읊으나 경찰서두, “이런, 오라질 년. 이년! 본서방 떠놓구 나가는 년 잘 사는 거 못 봤다, 이년!” 순사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라며설랑은 그저 미친 놈마냥 “오라질 년! 똥께¹⁵⁸⁾는 드럽게 무겁다, 이년!” 가설랑은 갔다 놓고 와설랑은 그 케를 거기 갔다 놓고 “니희 둘이 그 케를, 케문을 모두 못 빼구서 열어라.” 두 놈이 달려들어서 열으께 여자는 간 곳 없구 형사가 나와서 옷 잘 입은 놈 귀쌈을 썩리며 “이놈, 말만 잘하, 이놈. 너구 나구 살게되? 이놈!” 응. 그래가지구서 경찰서서 그 여자 버릇 고쳐서, 어체두 내가 그 여자 그 옷 흠이 입은 사람하구 그 여자하구 들어댕기는 거 봤어. 사는 거, 그 여자가 밥은어다 맥여. (조사자: 실핍니까?) (웃음) 뭘? 이런 거, 이런 거…….

서고칭¹⁵⁹⁾이 즈이 상전 모시구 가다가, 그느미 테가 워디드라? 봉암, 봉암을 가다가, 말을 몰구 가다가 말 차축¹⁶⁰⁾에다가 물을 담귀설랑은 해인사 있는 데 뿌렸어. “아, 이놈아, 너 그거 무슨 짓이냐?” “웬걸유. 함천 해인사가 불이 나서 지금 야단유. 나 불끄느라 그류.” 뿌리니까는 거기가 막 쏘내기가 퍼뽀가지구설랑 불이 꺼졌다는 거지, 해인사. 하구창한대루다¹⁶¹⁾ 이 다인¹⁶²⁾이지 이 북개뚜껍¹⁶³⁾ 덮어 놓구서도 잡곡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다 알구. (조사자: 뭐가 들었는지?) 쿵이.(조사자: 아, 예.) 다인들은, 옛날 다인들은 잡곡밥을 안 먹으

니까. 한이 없는 거이라. (조사자: 일화가 많죠?) 많지.

옛날이 우리 어려서 들었어, 내가. 이 열 살 안쪽이 들었나? 옛날에는 그 장사꾼이, 이 황하 장수라는 것이, 옷감 장사보구 향하장사라구 그랬어, 옛날이네. 당나구다가 실쿠 다녀. 그렇기 그랬는디 여기서 옛날이네 차가 읊으니까 걸어 땀걸을껴. 그 옛날에는 서낭나무가 많아. 고개 올라가든 서낭나무, 서낭 봤어? (조사자: 예.) 서낭나무. (조사자: 돌.) 왜 돌 가매¹⁶⁴ 던지구 채수있게 해달라구, 옛날에는 고개마두 있었어. 그래 띠꺼머리 총각놈이 장가두 못가구 당나구를 타구 당기여, 향하장수. 장예를 갈라든 서낭나무가 있어, 물건도 잘 팔리게 해주쇼.“ 빌구 땀겨. 아, 그 빈장, 빈 그델 가면 즈민욕이 암것두 안팔려¹⁶⁵ 안 빈 저작 장엘 가면 잘 팔려. 그 이상하지? 인제 노다지 그래. 여전히 안 팔려. 안 빈 장예 가면 팔리구. 하루는 해가 어지간히 넘어갔는디, 서산이 지는데, 아 거기를 보니까 꽤썸한 생각이나. 그래 “에이, 이 놈이 서낭나무 내벤대미 주구 만다.”구. 거기다 대구 오줌을 쫄쫄쫄. 그러니까 당나구는 가. 들구간단 말여. 오줌을 뉘. 오줌을 다 누고 나니까 당나구는 저만치 갔어. 그제 담박질¹⁶⁶ 가두 당나구는 만날. 고만치 떨어져. 찬찬히 가두 고만치 떨어지구. 싸게¹⁶⁷가구 고만치 떨어지구. 그저 눈에 꼭 띄게 고령키 가, 당나구가. 근디 노다지 땀기던 길인디 가다가 이렇기 두 갈래진 질이 있는디 이쪽 길루 가야 저 가는 디루 가구, 이쪽 길루 가면 가지 않던 질이거든. 근디 당나구가 이쪽 길루 가네. 저 가는 길루는 안 가구. 글구 쫓아가두 고만치 떨어져. 더 가두 앓구 들 가두 앓구. 아, 사램이 죽졌지 그냥. 해가 열추 넘어갔지. 아, 그란디 워편 동니, 큰 동니루 가더니 그래두 꼭 그 사람 눈에는 베게가, 당나구가. 어떤 집으루 쭉 들어가네. 크나큰 집으루, 동네 가운데 서슴치 앓구 들어가. 아, 이 사람이 거기를 쫓아가설랑 그 집을 쭉 들어가서 내 당나구라구 가져올 수는 없구, 주인을 찾아야 인제 당나구를 데리구 나올 꺼 아닌게베. 주인을 찾으라구 이르케 서슴서슴허니께 아, 부엌이서 밥하든 여자 하나가 쫓아나오매 “아이고, 마님, 샌님, 아무 절끼¹⁶⁸ 아무 때 나가던 새 서방님 인제 들어온다.”구. 막 소릴 질르네. 아 그라니께 애두 어떨무르하거던. 잉? 하더니 쫓아나오더니 “이눔아, 니가 하늘에서 떨어졌니, 땅에서 솟았니, 바람에 날려왔니?” 하구 막 데리구 들어가, 방으루, 안집으루. 아, 가만히 이눔이 장뽕백이루 수십 년을 땀긴 놈이라 그래두 눈치는 비상하던 모양이여. ‘야, 이 집이서 아들 노릇을 하면 아마 내가 팔자를 고치겠다.’ 저 뭐시기 아, 그러니까 인제 방으루 들어가설랑은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셨느냐?”구. 어찌구 인사를 하구설랑은, 참 집이 매우 좋단 말여. 근디 떡하니 문을, 샌님이 문을 열더니 “아무개 어디 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아무겠랑 아무데 가설랑은 고기 사오고, 아무개랑은 집 있는 돼지 잡구, 아무겠랑은 밥을 얼른 지라.”구. 아, 밥을 그냥 저 오는디, 밥을 해오는디 옛날거니까 이것만 하던가, 이것보다 조금, 나 보기는 봤는디, 찌꺼 죽던가 크던가 몰러. 칠첩 반상기에다가 개¹⁶⁹를 덮어서 해왔는디 참 밥을 잘해왔어. 생전 참 그런 밥을 먹어. 너머 침 생키지 말여. (웃음) 견이불식¹⁷⁰)이여, 그릇 가운데 떡이여. 밥을, 저녁을 먹구나니까 “오늘 해전이 길두 견구 고단할 테니까 네 방에 가 자거라.” 종을 부르더니 “애, 서방님 질 인도해드려라.” 그래서 아, 연사초랑¹⁷¹에다 대초를 쫓고 졸졸 끌고설랑 후면으루, 후면으루 가는디 후면 가운데 서태산을 묻고 서태산 가운데다 널리리 지와집을 졌는디 참 잘 졌드랴. 근디 죄이, 인제 그 사람 각시는 거기 죄이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구 있는 거여. 그래 인제 즐 자를 잡어타구서 가는디, 아, 그 영창 바깥으로 그림자를 보니까는 어찌 이쁜지 월국의 선녀두 같구 썩은 동아줄두 같구 참나무 비개미¹⁷²두 같구 호

박씨두 갈구, 당채 두보 모재기¹⁷³같이) 네모 반듯한 여자가 내 참 그렇기 이빠. (조사자들을 가리키며) 느히들 인물은 암것두 아녀. 거기다 대면 델 수두 읍어.(웃음) 그런 여자가 딱 장짓문을 반만 열구 턱 그라구서 이렇기 치마를 한뚜루미¹⁷⁴ 안구설랑 돌아스지, 쳐다보덜 못하구. 지끔 같으면, 느히들 같으면 “아이구, 서방님 인제 오셔?” 찌안구 악수두 하구 어찌구, 그때야 그런 법이 있나. 방으로 인저 떡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방에서 반듯이 쪼그리구 앉었지, 고개를 숙이고. “나는 객지에 가서 십 년간을 돌아댱겼더니만 당신은 늙은 부모들을 모시구 이 큰 살림에 월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지가 고생될게 모 있어요. 서방님이 객지에 나가서 고상을 많이 했지. 저는 부모님이 염려해주고, 서방님이 염려해주는 덕택으로 호강으로 잘 지냈습니다.” 아, 인물두 이쁘지만 말두 잘하. 그 여자 고렇기 이쁘게 하더니만, 그래서 아 이놈이 즈그나 필하면 그 여자 뺨이 잠두 안 올건디 “아, 나는 질두 걸구 거시기 하니까는 좀 두러뉘 자야겠다.”구 허니까 벌써 아랫목에다가 목공단 이불에다가 요에다 진공단 이불에 당채 뭐 이루 말할 수 읍어. 저 짝 벼름뺨¹⁷⁵에 한삼산 늙은 중이 택자손이 무릎에 얹혀놓고 바둑 두는 훈수하는 것을 역력히 그려놓고, 장차 북쪽 북평 벼름뺨은 어똥고 어똥고 그거 다 그런 거는 잔소리에 지나지 못한거니가. 그래 해 났는데 아 이놈이 봉노방에서 자던 짜로다가 네 확개를 짝 벌리구 코를 띠렁디렁 고네. 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이 안 잘 적에는 똑똑이 볼수 없구 나가서 몸이 어떠키 틀렸나’ 하구설랑 벽장문을 열구 백초 두 자루를 끄내서 이쪽 손에다 키구 이쪽 손에다 키구 하나는 켜놓구 시 개를 키니께 전기 아마 백축짜리 증기는 얼툷 당든게벼. 자시자시 보니까 어디루 봤든지 격이 사내는 아녀. 생면부지 초면이여. 그런 놈을 딱 데려다놓구 낭군이랴구 보냈네. 그래 여자가 깨우두 앓구 문을 가만히 열구 줄을 잡아 타구서 즈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어머니.” “아이, 너 우째 자지 앓구 왔니? 개가 먹을 걸 가져오래대?” “아녀유, 제방에 온 손님이 지가 아닌 것 같아유.” 옛날에는 제 사내보구 저랴구 그랬다. 나 어려서두 그랬어. “지가 아닌 개벼.” “요망스런 여자, 그게 니 사내 아니구 어똥게 내 사내냐?” “아니에유, 어머니, 가보시유.” 가서 보니까 판판이여. 그 얼굴이 아녀. 생전 처음이여. 아, 그러니 자기 영감한테 가설랑은 그 얘기를 하니까, 영감두 가서 보니까 또 판판이여. 그께 이놈은 물러 자느랴구 그니까 영감이 켜지. “여보게, 일어나게. 일어나. 그만 자구 일어나.” 아, 뿌수수 일어나니까 두 늙은이들이 와서 우두꺼니 앉았어. “아, 어머니, 아버지 왜 주무시지 앓구 나와 앉으셔있어요?” “쇠경¹⁷⁶ 개천 나무랄 꺼 뭐 있나. 내 눈 어둔 탓일세. 자네 워서 사나?” “살기는 워서 살어. 장에 땡기는 늙이지.” “그라믄 가게.” “가라믄 가지유, 뭐. 내가 뭐, 나가 잘못된 건 읍은께. 당신네가 붙들어 앉히구, 당나구가 거기 왔걸래 나 당나구 찾을라구 그럭하다가지차여차해서 내가 여기까정 온 거 아뉴? 갈라우.” 뿌수수 알아나더니 “가라니까 가지 뭐 있나? 여필종부라니” 여자 흘목¹⁷⁷을 잡구서 끌어. 아, 지부모가 그걸 보니까 천불이 나잖아? 그래두 양반이 법이설랑 그 여잘 끌어와……. “그 여잔 놔두라.”구. “히, 당신 메누리가 지랄을 하거나 미쳤거나 날 같은 여자가 끌어다가 여우는데 내 사람 내가 데려가지, 누가 데려갑니까? 두말 말구 가세. 끄는디 뭐 당장 할말이 읍어, 늙은이들이. 하참 기가 맥히지. 녀 부끄러서 말두 못하고. ”여보게, 좀 서게.“ ”무슨 소리여?“ ”내가 돈을 암만암만을 줄테니께 그 돈 가지구 가면은 장가두 들구 그 돈 가지구 논두 사구 살림도 잘 할팅께 가, 가게.“ “아, 지끔 값이 올 때가 뻤는, 닭이 우는디 어디루 가릅니까? 내가 주인을 워서 정합니까?“ ”내가 주인을 정해줄 텐께 그리 가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돈 가지면 잘 살구 마누라도 잘 은꼴꺼덩. “그럭하슈.” 인제 옛날이 엽전이니께 엽전 백 냥이면 장정이 해졌어. 백냥이면 장정 한 짐이여. 하마 한 이백냥 뻤던 모냥이여. 이백 냥이면 배, 쌀이 뻤 천 가마

여, 지금. 그러기 쫓던 모양이여. 그래 인저 그 주막집을 샀는데, 주인이 좀 인저 돈을 뛰서 옷방에다 드리구 옷방에서 담배를 한 대 빼끔하구 인저 아 아랫방 주인덕이 들랑날랑하더니 “아랫방으루 넘어오슈. 넘어오슈.” 그래. “아, 괜찮어유.” “아, 글세 괜찮으니 넘어오슈.” 할 수 읍이 뿌시시 일어나서 아랫방으루 넘어갔지. 넘어가니까, 제 벼게 이롱기 내려놓구, 저 텃구자는 이불 퍼놓고 이렇게 놓구 “미안하지만 이 방에서 잠깐 좀 기다리슈. 나 우리 어머니 지사가 이 등너먼디 지사 좀 지내구 오것썩다.” 절이간 색시지, 시키든 시키는 대루 해야지 뭐 할 수 있나. 그래가지구 “그렇하슈. 그러니까 인저 혼 요대기, 이두, 빨래두 안 했구 그래서 당채 이는 굵실거리구 그냥 거시기해서 “에이, 쌍뉴뜨거.’ 중의 바지 저고리 벗구 설랑 두둑 났겠다, 빨개벗어 버리구서, 집어 내뿌리구설랑 두둑났지. 근디 한참 있으니까 여자는 안오구 배깬에서 두더두더한단 말여. “아, 문 열어!” 어짜구 아, 문을 위편 놉덜이 쑥 열더니, 이불 밑에다 손을 푹 넣더니 이불 하날 둘둘 말아서 섬 속에다 놓구서 막 미구 가는겨. ‘아, 이누무 집이 과부라드니 과부 댕이러 왔구나.’ (웃음) 과부 댕여가는 거 알어? 몰르지? 몰르지? 옛날이는 과부가 혼자 살르는 그렇기 섬 속에다 댕여가서 살었어. 우리 어려서두 그랬어. 과부 댕이러 왔구나. 그러나 내가 여자는 아니구 남자니께 죄덜이 나 우특하랴. 그냥 갔어. 그리구 월마를 가더니 아, 옷방에다 들뜨리구설랑 아랫방에서 술을 먹는다 “야, 그 여자 참 똥깨두 되게 무겁더라.” “야!” 한 놉, “억신개벼, 야.” 그래더니 위편 여자가 하나 오더니 “오늘은 날도 보지 았구 무대뽀로 데리구 왔응께, 날 봐서 아무개하구 같이 살자.”하구, 오늘은 다 마실가구설랑44) 저 큰애기하구 같이 자랴. 옷방에 오늘 새닥하구 큰애기하구 같이 자랴. 아, 이 수달 들으니까 참 좋거덩. 큰애기하구 같이 자라니까. 그러, 아, 해더니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더라구, 전부 다 마실가 빠리구 그 큰애기만 있네, 아랫방이서. 그러면서 윈 이불서 “아랫방으루 넘어 오슈. 넘어오슈.”그래. “어구, 나 빨개벗어서 못 넘어 가겠슈. 불을 좀 꺼줘유.” 아, 불을 톱 켰네. 그러니까 그 넘어가서 이불 같이, 보개 비구서 드러뉘서 한심을 푸유하구 시니께, 기가 맥혀서. 여자가 하는 소리, “한숨 실게 뭐 있슈? 우리 오빠두 동네서 일류구 재산두 있구 임물 있구 키 크구 말 잘하고, 뉘편 은을라면 그런 뉘편 은으면 참 잘 은는 거유. 나두 택일까정 다해서 메칠 안 있으면 시집가게 되유.” 아, 이라거든. 아,인제 그냥 밤새도록 자야할턴디, 아 여 남자란 놉이 짹쪽거리네. 그러니 당하기 부동이지 같이 자두 잤다, 안 자두 잤다, 응? 소문은 다 났어. 나게 돼. 나지 뉘, 잉? 자두 잤다, 안 자두 잤다, 둘이 잤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말을 들어 뿌렸어. 그거 그때나 지금이나 귀경이라든 좋아서 어떤 여자들이 짹신을 짹짹 끌구 “아무개네 색시 왔다더니 월마나 이빠? 좀 보구 가야지.” 방문을 불쑥 열구 가. “위매!” 뒤 오는 년, “왜 너마 이빠? 나두 좀 봐.” 아,뜨락은 오라지게 높더라. 푹떨어져 팔 뿌러진 여자, 다리 뻗 여자, 그저 아 이구 환자가 줄을 이어, 그때 동네에. (웃으며) 그짓말 잘하지? 그래서 그 소문이 나구. 그랑겐. 지 부모네들이 와서. 총각,여자는 그만두고 총각만 데려다 났네. “여보슈, 여보게, 자네 워서 사나?” “아무두 살거니 나가 여기 걸어온 거유? 당신네가 섬속에 묶어다가 온 거아뉴?” “그렇지,가게. 넘부끄러워.” “아, 가라든 가지 뉘. 나가 여기서 살거유? 그러나 빨개 벗었응께 벗은 놉이 빨개 벗구 나가든 미친 놉이라구 넘이 그럴팅께 웃이나 주슈. 그 아덜마누라, 여자 데리든 줄라구 새 옷을 한 벌 해 났거든. 그 옷을 쫓지. 위특하? 급하니까. 그 옷을 입구설랑 주막집 이불을 푹푹 말어 저드, 저드랑이다 찌구 그 시악시는 부엌이서 볼때는디 부엌으로 가서 “밥 그만 두구 가세.” 그러니 거 위특할 켜? 아, 가자구 끄는데 우특할 켜? 그때만해두 뉘 말이 굉장히 많은 시대 아냐? 옛날이니까, 호랑이 담배 목던 시절이니까. (조사자: 하룻밤 잤으니.) 응, 자구. 아, 큰일났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가

참 그렇게 못생긴 애두 아니구 ‘야, 이거 워특하? 저 집이선 벌써 다 틀리구 그랬으니까 딸 여우야 겠다.’구. 콩나물두 질러놓구 두부도 해놓건, 그때 아들 여자 데려오면 줄라구, 잔치 해, 떡두 쪼끔 했어, 몇 되. 그냥 딸 그 사람하구 여웠지. 여웨가지구서 그 집이설랑 한 뭇 달 있다가 주막집 이불 갖다 주구 거가 돈두 찾구 그렇게 해서 살어, 기쁨. (웃음) (조사자: 진짜죠?)

아, 중국 덮는 뜸.(조사자: 뜸요?) 포장을 장만해 오라믄. (조사자: 중국을 덮는…….) 그 나라 그 넓은 나라를 덮는 뜸을 워터기 멩, 워 워터기 하믄 해결되겠어? 그러믄 좀 연구를 해야 지. (조사자: 뭘테요 뭘테요, 할아버지?) 응? (조사자: 모르겠어요.) 어디해 봐. 얘기해 봐. 그거 간단하. 자 하나 가지면 덮는 뜸을 하는 거. 자, 한 자 두 자 하는 거. 그거 그걸루 덮는 뜸을 해오랬으니까, 그 자루 재, 뭇 자 뭇인지. 재 주야¹⁷⁸⁾ 그거 덮는 뜸을 맨들 꺼 아녀? 그거 재달라 구런 거여, 자루. 그러니 큰 나라를 자루 언제 재? 한 자 두 자. 그렇게 말 막음이지, 응?

의주 압록강 퍼붓는 두멍, 그걸 뭇루 맨들겠어? 워특 해야 말막음 되겠어? (조사자: 압록강 물을 갖다가 퍼서 담는.) 그거 담는 그릇을 멩글라구 하니 그거 죽기 생전 퍼부면 그거 헐 켜? 그것두 쉽잖아? 생각하믄 쉽지? 그걸 꼭 멩글어야 되나? 말루 말막음하는 거지. 해봐. (조사자: 압록강이 얼만큼 되나, 양이.) 응. (조사자: 그거 좀 가르쳐 달라구 해서 만들어 갖구…….) 거 사발 가주 가면 될 꺼 아녀? 뭇 사발이나 되나 그거 재 보라구. 재보면 거 숫자 대루 멩근다구, 응? 그 뭐 어려워? 그 문제는 멩글어서 해야지 뭐 워특해?

겨울이 딸구¹⁷⁹⁾ 서 말을 구해오라믄 워특하믄 되겠어? 눈이 하얗는디 딸구가 어딴어? 겨울이. 지끔은 하우스다가 딸구를 재배하지만 옛날이야 딸구가 워디 그런 딸구가 있었어? 옛날 이는 멩석딸구 아니믄 저 뱀딸구지. 그것은 또 딸구를 대서 하는 것 보담두 탄 편으루 또 그걸 말막음을 해야지. (조사자: 겨울에 뱀…….) 잉. 뱀 뱀을 물렀다. 딸구를 구하러 땡기느라구 까시덤풀루 그렇기 땡기다가 독사를 물렀다.

또 이런 소린 쪼끔 상스런, 장담 알 스 말을 구해오라믄 어터키 구해 오겠어? 알, 수탉에 알. (조사자: 수탉이 난 알, 아아.) 그걸 워터키 구하겠어? 의견을 내야지. 선상님, 워터키 하믄 구하겠어유? 그 쉬어. 알을 구하러 땡기느라구, 아버지가 알을 구하러 땡기느라구 이리저리 돌아땡기다가 봉넛방에서 지무시다가 강탈을 당했소. 그래서 어린애를 나서 지끔 북, 거시기하오. 그러니까 그 원이 “이눔아, 남자가 어린애를 워디가 있냐”니까, “장담알을 낳는 것은 워디가 있냐?”구 그랬다. 맞지 않어? 그거 또. 이 배는¹⁸⁰⁾5)테는 상스러운 것두 관계없이 하는 거여. 얘기하자믄 이만큼 들어가지.

(조사자: 저기 토정 선생 얘기 들으신 거 많이 있죠?) 토정이 여기지. 여기 유울목.(조사자: 예 예. 토정 선생 얘기 좀 해주시죠.) 토종이 여기 거시기 할 적이 “아무 때구 이 거북 코에 설랑은 피나오며는 용목¹⁸¹⁾ 터지는 중 알아라.” 그랬거든. (조사자: 거북코에서요?) 잉. 도구¹⁸²⁾를 맨드는 거북, 저기다 해 썼는디,¹⁸³⁾ “거기서 코피가 나오믄 터지는 중 알아라.” 그랬어. 그래니 그거 거북, 도구를 만든 거북에서 코피가 나올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 미친 늑이라 구렸지. 그야 뭐 워느 날 워편 놈덜이 술 먹구 거기서 싸우다가 코피가 났는디, 거북 코에다가 이리 소매를 이렇기 해설랑은 거북 코에다 찌쳤어, 피가 났으니까믄. 거북 코

에서 피가 나. 그날 저녁에 터졌다는 거. 그게 거북 코에서 피가 나 그렇기 된 거여.

(조사자: 저기 여기 뭘니까, 이쪽에 바닷물이 넘치는 걸 뭐 예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데.) 몰러. 여기, 게 작때 바위가 여 있지. 여 토정보담 더 아는 이가 있지 않았어? 서고칭. 서고칭이 소금장사 할 짝이. (조사자: 아!) 요기다가 올라가다가 인저 고기서 쉬니께 토정이 “여보셔, 쪼금 더 올라가지. 거기까정 물 들어 오지 않았수?” 그러니까 “요 작대 끝 있는 디배끼¹⁸⁴⁾ 안 들어올끼쥬.” 하구서 지냥 받쳐놓구 있응께, 꼭 고 작대기 받쳐논 고 밑으루 잘랑잘랑. 그 서고칭이 아, 그래. 감록도 있잖어? 증감록,¹⁸⁵⁾ 서감록¹⁸⁶⁾ 있잖어? 그이 서고칭이 더 용탄 거여. 증감록이 일찍 쑥 들어가잖았어? (청중: 학상들한테 그짓말 하기 싫어서 말여.)

지삿날, 지삿날이라구 그라믄 인저 괴 집이서 자는디, 아, 다 그런 사람들은 지사 지내러 가믄 옷두 잘 입구 시수두 하구 머리두 빗구 그락하는디 그 산골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머리두 안 빗구 시수두 얹구 옷두 안 입구 그라구서 개고기를 해놓구던, 개하구 지사야 아주 상극 아녀? 근디 그 지사를 다 지내구 불려설랑 약주를 잡수라구라니께, 그 지사판에 이렇기 개를 놔. “우리 아버님이 다른 것은 안잡습니다. 개고기, 개고기를 잡쉬두 아버님이 한 침 잡수믄 나두 한 침 베풀 주구, 술두 아버님이 잡수믄 나두 잡수구, 나두 주구 그라구설랑 그와 같이 아버님 질긴 것이 죽어서라구 달블¹⁸⁷⁾ 리가 있슈? 그라 개고기를 해 놓니다. 또 부모 죽은 날 무슨 거시기루 새옷을 입구 머리를 빗구 시수를 한단 말이유? 그냥 난 안 합니다.” 박문수 박의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뱀이 또 옳다 구란 거여. 그렇기 잘한 거라구. 그래 살어서 송장이 좋아하는 걸…….

아. 인주면 마을 8 (해암리)

1) 조사일정

1992. 6. 27., 이미진 기록

12시에 해암리에 도착하여 한 할아버지를 만나고 보니 마침 사전에 연락된 이창수 씨였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은 할 줄 아는 이야기가 없다면서 동네에서 말 잘 한다는 김성배 씨를 추천했다. 그래서 다시 김성배 씨 댁을 찾아 나서 12시40분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성배 씨는 없고, 김성배 씨의 부인으로부터 옆집에 사는 김동철 씨를 추천받아 도착한 것이 12시50분이었다. 김동철 씨에게 <형제소나무 이야기>, <계바위 이야기>, <능구리굴 이야기>, <절골 미륵불의 영험>을 들었다. 오후 1시10분에 이 집을 나서는데 마침 김성배 씨가 귀가했기에, 다시 찾아가 <형제송 이야기>, <해송(海松) 이야기>, <능구리굴 이야기>를 듣고 오후 1시45분에 다음 조사지인 금성리로 향했다.

2) 마을개관

【인주면 마을 8】

337-830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해암리 1구

1992. 6. 27., 권민정 조사

농사를 지으며 총 40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인주면 해암리 1구는 계바위라는 자연부락이름을 가지고 있다. 마을은 논으로 둘러싸여 새로 포장된 길 안쪽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지만 빈집들이 많이 보여 농촌 문제의 심각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마을에 교육 시설이 없어 인근의 금성국민학교와 인주중학교로 다닌다. 종교는 천주교가 조금 많다. 소작농과 자영농의 비율이 1:1로 나타나는 이 마을에 전래하는 민속행사는 없지만, 형제소나무와 계바위, 그리고 능구리 굴이라는 전설이 담긴 나무와 바위가 몇 가지 전해진다.

3) 구연자

【해암리 구연자 1】

인주면 해암리1구, 김동철(金東哲), 남, 71.

1992. 6. 27., 황재영 조사

현지에서 5대째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중키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마디가 없었으며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학력은 없고, 무식한 사람이 될 아냐며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했다. 구연시에 ‘뫼, 뫼…….’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다. 자택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청중은 없었으며, 조사자들이 가려고 대문 밖을 나서자 그제서야 따라 나서며 몇 가지 이야기를 조심스레 내놓았다.

【해암리 구연자 2】

인주면 해암리1구, 김성배(金成培), 남, 75.

1992. 6. 27., 황재영 조사

현지에서 13대째 거주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없고 직업은 농업이다. 얼굴이 작고 볼이 움푹 들어갔으며, 눈이 약간 녹색을 띠고 이가 없어 발음이 부정확했다. 능구리 굴 바로 아래에 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굴에서 구렁이 잡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고 했다. 현재에도 구렁이를 잡으려고 굴 둘레에 그물을 놓았다.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 듯했고, 한자를 자주 섞어가며 문답형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냥 얘기할 수 없다며 “이놈들, 이 할아버지가 그냥 얘기해?” 하며 이야기에 대한 보답을 바랬는데, 이것은 전에 방송국이나 타대학에서 조사를 해갈 때 답례를 받곤 해서 하는 말 같았다. “얘기를 똑똑히 듣고 잘 녹음 해.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옛것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일제시대, 6.25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자들에게 훈시했다.

4) 설화자료

【해암리 설화 1】

인주면 해암1구, 김동철 씨 택, 6. 27., 권민정, 이미진, 황재영, 유주연 조사

김동철(남, 71)

형제소나무 이야기, 능구리굴 이야기, 계바위 이야기, 절골 미륵불의 영험.

대음 2. 뒤

이건 얘기가 아니라, 거기 써붙이기럴 임진왜란 때라나 그 때에. 거기 썼다구. 근디 전설은 인저 옛날 난리에 저기서 워딘지 그전엔 옛날에 신작로가 있었는지, 그 형제가 피난가다가 저기서 인저, 고기서 동상은 먼침 고기서 죽구, 형은 쪼끔 더 가서 죽구 한 칠 메타 가서 이러키 쌍으로 났는디, 지금 그냥 그거루다 하여튼 거기 저 써붙인 거 보니까 거기 다 있어. 거기다 써 붙였는디, 근디 그제 하여튼 임진왜란 때 심은 소나무디, 여기 소나무가 아녀, 왜술이여. 그래서 그것백이는 몰르구 (조사자; 근데요, 형제들이 왜 저기서 죽었대요?) 피난 가다가. 임진왜란 때라구. 형제술이라 그라지. 요 앞이 거는 작구. 요 가다가. 하난 형이라 쪼끔 크구 그라. 나무 껍질이 이상혀서 꺾으르는 나무 송진이 빨그스름혀. 그래서 옛날이 꺾지 말라구. 피 나온다구 그런 전설두 있구.

능구리굴은 그제 저 사람이 그랬지. 지금은 의약이 좋지만두, 옛날이는 그 죽을 병 들으면 그 피병¹⁸⁸이니 옛날이니 그런 걸 알었나 뭐. 무슨 병인줄두 몰르구 돌아가셨잖어, 할아버지덜. 그러니까 그 뱀이 좋다구 그러더라. 눈이 이렇키 오면은 뱀을 어서 잡느냐구? 그놈의 것 이러키 선창게 앓을 때 뱀 먹으면 좋다구 그래. 없는디 어디가 잡어? 그래서 거기다 불을 때면 말여 뜨거우니까 뱀이 나오더문. 그래서 그제 능구리굴이라구 요기. 효과볼라문은 능구리가 나오고, 능구랭이라구 있잖아? 그제 나오고, 효과 없을라문 큰 구랭이, 구랭이가 나오고 그렇더문. 그렇다구. 그것배끼 몰러.

그이 바위, 계바위가 여기 요 밑창이 맥혔었었거든. 그전이 갯고랑¹⁸⁹이 요러키 조수가 드나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이 이게 갯물이 이러키 굽이쳐 갔다 그러면 삼십 년이면 서른이면 이쪽을 파먹어가지구 이러키 돌아가기 마련여. 그러니까 여가 말하자면 인주면, 저가 선장면 땅으로 갔다 인주면 땅으로 왔다. 왔다갔다하고 필이 며쳐.¹⁹⁰ 그래서 여가 계바위라구 나왔었거든. 그런 것이 그러면 저쪽 땅이 인저 이리다 머가지구서 계바위가 미었다. 또 삼십 년 후엔 또 파 나가니까 또 튀어나왔다. 그래 그거 그거 보구서, 그이¹⁹¹같이 생겼어.(조사자; 생긴 모양이요?) 잉. 모양이. 그래서 계바위라고 그라지, 그거보구.(조사자; 그거, 그제 지금 어디 있나요?) 그기 지금 미었지. 미여가지구서, 저 섯교천을 딱 막아노니까 인저 눈이 댘지. 거 형체는 고기 있어.(조사자; 형체는?) 형체는.

홍씨네가 득세하느라구 양반덜, 미력¹⁹²을, 그냥 양반이, 저기 절이 있거던. 한 절골, 절골. 거기다 인저, 그 중 하나가 큰, 아주 말하자면 아주 한 열 자 되는, 한 한 몇 백 근 되는, 중이 나가면서 미력을 돌려왔다는군. 그러니까 그 동네서 막 그냥, 말하자면 생피불구 이러키 그렇다는 전설이, 그제 좀 있드면. 그래서 중이 그랬다구 그런 얘기두 있구.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여기 살긴 하는데, 미력이 집이다가 새가 있이니까 돌팔매질을 해서, 새 잡는다구, 잡었거던. 그 뒤루는 이 손이 떨어져. 그래가주 거 가서 떡 해놓구 빌으니까 낫더라구,

인제. (웃음) 그런 분은 여기 살구, 그렇하구 고친 분.

【해암리 설화 2】

인주면 해암2구, 김성배 씨 덕, 6. 27., 권민정, 황재영, 이미진, 유주연 조사

김성배 (남, 75)

형제송 이야기, 늑구리굴 이야기.

대음 2. 뒤

임진왜란 적이 뒤에는 추병¹⁹³⁾이 급하고 앞에는 대강¹⁹⁴⁾이 있어. 그러믄 그때 형님 말여, 가면서 자문했어. 그 칼루다 목을 찢러 죽었어. 인저 우송.¹⁹⁵⁾ 우송이 동생이거든. 나가면서 가보니 갈 데가 있나? 형제 모두 다 같이 죽었어. 그 나무가 형제송이거든. 그 나무를 꺾으면 피가 나왔어. 송진이 빨개여. 송진이 지금 나무 꺾으면 하얗지? 그 나무 빨갯다구. 그래 그 나무 건달지 못하게 했구, 건달면 죄 받는다구 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교, 그 사람덜이 와서 나무를 망쳐놔어. 통일교? 그 사람네덜이 와서. 고약한 놈들.

아, 운젠가¹⁹⁶⁾ 고씨라는 성 가진 사람인다, 그가 산제를 가, 뭘 혼저 먹었대요. 아, 와 보니 껌이 거기 돌아댕겨. 샘이 가서, 뻘이. 그래 늑구리라구, 보니 늑구리여. 그래 산제를 못 올렸지. 그래서 그 동네에 자꾸 불황이 생기니께 그 동네서 하얀 노인이, 산신령이었던 모양이지? 그 저 “양중이¹⁹⁷⁾ 그 어디다 산을 파라.” 참 이상한 게 암만 가물어도 물이 나오구, 장마져두 더 안나오구 그렇게 해서 산을 팠거든. 근데 여기 뚫거든. 인저 늑구리 굴이 뚫어. 인저 그때만 해도 효심 가진 사람들이 와서 늑구릴 잡아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병환을 했지. 그래 그 사람이 정성스러우면 늑구리가 나오고 그래. 불을 때야 나오지.

1) 마눌 : 매눌. 매같이 사나운 바다 물결이라는 뜻의 뱃사람 용어.

2) 뚝 : 독

3) 여흥바위 : 영바위(靈巖)

4) 들안 : 뜰안

5) 풍처럼 : 허풍처럼. 거짓말로

6) 달개머리 : 지명. 鷄頭峰

- 7) 예기 : 얘기
- 8) 파헤쳐나 : 파헤쳐 놓아
- 9) 빠졌구 : 빠졌고
- 10) 맡아놓구 : 받쳐 놓고
- 11) 축짜대기 : 지게 작대기
- 12) 적 : 집
- 13) 즉게 : 작게
- 14) 거보더 : 것보다
- 15) 어또기 : 어떻게
- 16) 동화밭 : 동아밭줄
- 17) 두들이잖어 : 두들기잖아
- 18) 귀를 : 귀로. 귀에.
- 19) 서대 : 서 되
- 20) 유모링 : 유모어
- 21) 썩긋두 : 썩썩도
- 22) 그니 : 그러니
- 23) 근너 : 건너
- 24) 십뺨이 : (물결의) 힘발이

25) 셋 : 셋

26) 넘었때는 : 넘었다는

27) 전량 : 돈과 양식

28) 사람들헌템 :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말.

29) 푸해갓고 : 눈이 말라서 푸석푸석해졌다는 말

30) 용 구자 : 용 룡(龍)자

31) 구룡쟁주 : 九龍爭珠. 아홉 용이 구슬을 다툼.

32) 구룡팔경 : 구룡동의 경치 좋은 여덟 곳

33) 칠년송 : 천년송. 천년 된 노송

34) 재문 : 자문

35) 영화 : 영화

36) 낭중이 : 나중에

37) 행생 : 행상(行喪). 상여가 나감.

38) 상제엄설 : 喪制嚴設. 상여 등 상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엄숙히 차림.

39) 용몸드는 : 미상

40) 龍池女家(?)

41) 伽倻暮雲

42) 영암신루(靈巖蜃樓)

43) 烏山落照

44) 有我縣. 우리 현에 있다?

45) 평택 : 평택

46) 자구네 : 자기네

47) 지성호 : 지씨 성

48) 完文(조선조 때의 부동산에 관한 문서)

49) 달구 : 다리

50) 나섰어 : 종기가 다 나왔다는 말.

51) 벼다가 : 배어다가

52) 사패지주 : 사패지(賜牌之地:나라에서 내려준 땅)

53) 無後. 자식이 없음.

54) 씨겨서 : 지관을 시켜서 묘를 썼다는 뜻인 듯.

55) 월미네 : 다리이름. 월미래(越未來). 한 번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

56) 전장할 : (임진왜란) 전쟁할

57) 허미수 :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 ~ 1682). 숙종조의 학자이자 정치가. 남인의 영수.

58) 뒤를 보고 있는데 : 대변을 보고 있는데

59) 목신 : 나막신

60) 지 : 자신의

- 61) 심 : 힘
- 62) 그 낭반 : 다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허준을 가리킴
- 63) 허준 : 許浚(?~1615). 조선조 선조 때의 전의. 동의보감의 저자.
- 64) 용삼뱀 : 용삼독(茸蓼毒:녹용과 인삼을 잘못 먹어 생기는 독)
- 65) 썰 : 채울
- 66) 귀공이 : 함께 약초 캐러 간 사람을 가리킴
- 67) 오라구 : 오래고
- 68) 찌구 : 끼고
- 69) 살펴 보고서
- 70) 모태 : 모야
- 71) 중구구 : 중그고. 겨냥하고
- 72) 누야 : 놓아야
- 73) 우강 : 당진군 우강면(牛江面)
- 74) 범천면 : 부천면(浮川面)
- 75) 처음에는
- 76) 당아 용자 : 방아 용(春)자
- 77) 당할 : '방아'를 잘못 말한 듯함.
- 78) 부재 : 부자(父子)

79) 이우지 : 이웃이

80) 느시 : 너희

81) 마실 가 : 이웃에 놀러가서

82) 밝드락 참 시킴혀 : 밝더라도 참 섬짓하다는 말.

83) 미서운 : 무서운

84) 춘디 : 추운데

85) 소대끼 : 속이려는 듯이

86) 가니께 : 저물어 가니까

87) 벼 보면 : 배어 보면

88) 부모게다 : 부모에게다

89) 처눈 거여 : 처넣은 거야.

90) 보첩 : 譜牒. 족보

91) 세준 거 : 세워 준 거야

92) 장주가 : 장죽이

93) 실조 : 實祖. 실제의 조상

94) 設堂. 사당을 지음

95) 지사 : 체사

96) 손 : 후손

97) 뵈분 : 장영실의 선조

98) 저울기 : 겨울

99) 워서 : 어디서

100) 전세가 : 전수가, 모두가

101) 도격썌서 : 도술을 썌서

102) 조라시 ; 조라술(산신제를 지낼 때 제주로 썌기 위해 빛은 술.)

103) 테가지구서는

104) 자택이다가 : 자배기에다가

105) 목견에서 : 목격해서

106) 장제승 : 장개석

107) 차나물 : 찬우물

108) 뵈하지만 : 못하지만

109) 지하집 : 기와집

110) 사무들 : 사뵈

111) 평민이러 : 평민처럼

112) 이키 : 이렇게

113) 베켜드린다구 : 보여드린다구

114) 상시칼 : 상식(上食 ; 상갓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영좌에 올리는 음식.)

115) 의사 : (암행)어사

116) 지 : 저의, 박어사의

117) 초례됐는디 : 초상이 났는데

118) 절 : 겨울

119) 기고 : 기제사

120) 때 : 제사 때 신위에 올리는 밥

121) 지찬대루 : 법식대로

122) 감토 쭈구 : 감투 쓰고

123) 외사 : 각자 받는 밥상

124) 맹가 : '맹자'를 말하는 듯.

125) 맹승 : 맹성(孟姓)

126) 떡쟁이 : 떡서리(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으로 넣고 만든 그릇. 곡식을 담은 데 씀)

127) 산내끼 : 새끼줄

128) 돼민 : 동여 맨

129) 인자 : 인제

130) 동호일언 : 동호의 한 마디 말. 동호는 중국 진나라 사관. 직필로 유명했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함.

131) 투쟁 : 투성

132) 위견 : 의견

133) 만주백관 : 만조백관(滿朝百官)

134) 크더마난 : 커다란

135) 풍하일람 : 풍화일난(風和日暖 : 바람은 온화하고 해는 따뜻함)

136) 등 나무 : 등 너머, 고개 너머

137) 선상님 : '어사'를 잘못 말함.

138) 소재 : 소지(所志 : 관청에 하소연하는 글)

139) 수지자웅 : 수지자웅(誰知雌雄 : 누가 자웅을 알겠느냐)

140) 게루다가 : 그 일로다가, 그 일로 인하여

141) 쩌껴났어 : 쫓겨났어

142) 작아도 사또는 사또고, 어사나 가짜 사또나 사(使)자가 들어가는 것은 같으니 어사로 모시라는 말.

143) 완면허게 : 완만하게, 느리게

144) 한면은 : 한만한, 한가한

145) 다인 : 대인(도량이 큰 사람)

146) 보는 : 보기에

147) 전보사리 : 전봇대

148) 지구 아니구 : 그렇든 안 그렇든

149) 께수네 : 꼬이네

150) 백새 알 치듯 : 백새 알 까듯(많다는 뜻)

151) 싫은 : '좋아하는'을 잘못 말함.

152) 본남 : 본 남편

153) 행랑채가 문패 붙인 거여 : 객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

154) 돌이 배가 맞아서 그렇게 되었겠지마는

155) 흑백 : 흑백(黑白)

156) 휘먼테 :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먼 곳

157) 이체 : 이치

158) 똥게 : 똥집은, 몸집은, 몸무게는

159) 서고청 : 고청(孤靑) 서기(徐起, 1523~1591). 조선조 선조 때의 학자.

160) 차축 : 채찍

161) 미상

162) 다인 : 대인(大人)

163) 복개 뚜껍 : 밥그릇 뚜껍

164) 가매 : 가면서

165) 그 빈 장, 빈 그델 가면 즈민옥이 암 것두 안 팔려 : 서낭나무에 빌고 나서 장에를 가면 아무 것도 안 팔린다는 말.

166) 담박질 : 뽕박질

167) 싸게 : 빨리

168) 아무 절끼 : 어떤 겨울에

169) 개 : 덮개, 뚜껑

170) 견이불식 : 見而不食(보고도 못 먹음)

171) 연사초량 : 청사초롱

172) 비개미 : 벼틀에 달린 도구의 하나.

173) 두부 모재기 : 두부모

174) 함초롬히

175) 버름빡 : 닭벼락

176) 쇠경 : 소경

177) 흘목 : 손목

178) 재 주야 : 재 주어야

179) 딸구 : 딸기

180) 배는 : 배우는, 공부하는.

181) 용목 : 영목(육모)바위를 말함.

182) 도구 : 돌로 깎아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거북상.

183) 해 섰는데 : 해 세웠는데

184) 비배끼 : 테밖에

185) 증감록 : 정감록(鄭鑑錄)

186) 서감록 : 徐鑑錄

187) 달블 : 다를

188) 피병 : 폐병

189) 갯고랑 : 갯가의 고랑

190) 머저 : 매워져

191) 그이 : 게

192) 미력 : 미륵

193) 추병 : 추격해 오는 적병

194) 대강 : 큰 강

195) 우송 : 右松 - 오른쪽 소나무

196) 운젠가 : 언젠가

197) 양중이 : 나중에